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15년 3월 15일(주일) 제1040호

## 청년희망공간 '이룸(e-room)'



청년희망공간 '이룸(e-room)' 첫 예배를 드리고

**청년 위한 예배처소 ... 캠퍼스선교, 직장선교, 문화선교 앞장**  
**주일에배, 폴투(오전 10시), 길(오후 2시), 열린예배 CH630(저녁 6시 30분)**

다. 청년들을 위한 도심 속 예배처소 그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설렌다. 청년희망공간 이룸(e-room)은 한글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청년들의 비전이 이루어지는 공간을 의미한다. 영어로는 이 땅의 청년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Evangelism), 하나님의 능력이 공급되며(Energy),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Experience) 공간을 의미한다.

청년희망공간 이룸에서는 Pole2공동체(주일 오전 10시), 길공동체(주일 오후 2시), 열린예배 CH630(주일 저녁 6시 30분)이 희망을 꿈꾸고, 비전을 노래한다. <관련기사 2면>

청년희망공간 '이룸(e-room)'이 드디어 문을 열었다. 젊음의 거리 대학로에 청년들을 위한 예배처소가 마련됐다. 캠퍼스선교, 직장선교, 문화선교를 통해 '청년 부흥'이라는 시대적 사명을 완수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획\_ SNS목회시대를 준비하라

» 4-5면

SNS, 목회자와 성도 간  
거리 좁히고, 다음세대  
와의 접촉점  
진정성, 어떻게 복음을  
담아내느냐가 중요



사역\_ 의료선교팀 CMN

» 6면

재난과 환자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간다  
CMN, 청진기 들고  
땅 끝 누빈다



2015년 2차 선교사 파송

신사라 남아시아 H국  
아삼 중동 E국  
박하늘 일본  
박다윗 남아시아 H국  
최한나 남아시아 F국  
채필립/조이폴 중동 A국  
갈렘/브리스가 남아시아 M국

러브소나타 교토 1차 참가자 교육

일시: 3월 19일 저녁 7시 30분  
장소: 양재 화평홀

온누리신문 취재기자 모집

제출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기명기사, 최종학력증명서  
문의: one@onnuri.org, 02-3215-3193

# 청년희망공간 첫 예배드리던 날

캠퍼스 선교, 직장 선교, 문화 선교 위한 영적거점



지난 8일 청년희망공간 이룸에 모인 자제들은 예배를 드리며 부흥을 꿈꿨다.

문화와 젊음의 거리 대학로에 ‘청년희망공간 이룸(e-room)’이 드디어 문을 열었다. 청년희망공간 이룸은 대학로의 영적거점이다. 캠퍼스 선교, 직장선교, 문화선교를 통해 ‘청년 부흥’이라는 시대적 사명을 완수해 나갈 것이다.

지난 8일 해화역 1번 출구로 나오자 환영 팻말을 든 자제들이 ‘청년희망공간 이룸’으로 가는 길을 안내하고 있다. 청년들의 안내를 따라 이룸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재촉했다. 이날은 이룸이 공식적으로 문을 여는 날이다. 길을 따라 가면 ‘동송 아트센터’가 나오는데 청년희망공간 이룸은 이곳 2층에 위치해있다. 그곳에서 만난 자제들의 얼굴에 설렘이 가득하다. 청년들을 위한 예배공간 이룸에 대한 기대감이 엿보였다. 예배시간이 아직 남았는데 자리는 이미 꽉 차있다. 청년들은 이룸 여기저기를 둘러보며 서로 이야기꽃을 피웠다. 배동혁 형제(Pole2 공동체)는 “이룸을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기대된다”면서 설레는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오후 2시, 드디어 이룸에서 드리는 첫 예배가 시작됐다. 청년희망공간 이룸이 첫 발을 내딛었다. 새 역사가 시작됐다. 청년들은 기뻐 뛰며 찬양하며 청년희망공간 이룸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렸다. 노홍규 장로(대학청년본부 대표장로)는 대표기도에서 “청년희망공간

이룸이 캠퍼스, 직장,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는 공간으로 사용되게 해달라고” 간구했다.

## 제사장 공동체가 되기를

이날 위신팀의 공연이 남달랐다. 이 위신팀은 Pole2 공동체와 GIL 공동체가 연합해 만든 팀이다. 이재훈 담임목사도 청년희망공간 이룸의 시작을 축하하기 위해 자리했다. 이 목사는 설교에서 “이룸에 모인 청년들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깨달아야한다. 청년들이 제사장공동체가 되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솔아 자매(Pole2 공동체)는 청년희망공간 이룸에서 예배드리면서 “믿는 청년들을 통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비전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청년희망공간 이룸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청년들의 비전이 이루어지는 공간을 의미한다. 또한 이 땅의 청년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Evangelism), 하나님의 능력이 공급되며(Energy),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Experience)하는 공간이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 서울시 종로구 동숭동 1-5번지 동송아트센터 2층 ‘청년희망공간 이룸’

/ 김현준 기자 khj@onnuri.org

## 청년희망공간 이룸(e-room)공동체 안내



### Pole2 공동체

캠퍼스선교의 Clue(Culture, Leadership, Unity, Essence)를 만드는 공동체

청년희망공간 이룸을 통하여 Pole2 대학부는 캠퍼스선교의 발

판을 마련한다. 믿음의 다음 세대인 대학생들을 세상을 변화시키는 리더십으로 양육하는 공동체다. 이를 위해 ‘캠퍼스 선교’, ‘희망 Twenty’, ‘블레스 앤젤’ 등의 사역을 진행한다. 예배시간: 매 주일 10:00



### GIL 공동체

청년부흥의 Core(Challenge, Overflow, Relationship, Effect)가 되는 공동체

GIL 청년부의 비전은 직장선교와 도심선교의 중심이 되는 것이

다. 청년들이 복음을 통한 삶의 거룩한 도전을 시작한다. 이룸을 통해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흘려 보내는 역할을 감당한다. ‘직장 전도’, ‘마로니에 가스펠’, ‘대학로 플리마켓’, ‘클린 무브먼트’ 사역들을 섬긴다. 예배시간: 매 주일 14:00



### 열린예배, CH630

새로운 세대 문화선교를 위한 TECH(Theme, Experience, Creativity, Hope)

‘CH630’은 열린예배다. 새로운 예배 형식을 통해서 새로운 세대

를 준비하고 새로운 문화로 젊은이들과 공감하며 소통하는 공동체를 목표로 한다. ‘문화사역’, ‘버스킹 O.D.O’, ‘Spiritual SNS’ 등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춘 창의적인 문화선교를 계획했다. 예배시간: 매 주일 18:30



칼럼 김승수 목사(대학청년본부장)

##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는 ‘이룸(e-room)’을 꿈꾸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대학청년부가 젊음의 거리, 문화의 거리 대학로에 새로운 예배처소를 마련하게 되었다. 새롭게 마련된 공간의 이름은 ‘청년희망공간 이룸(e-room)’이다. 한글로는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는 곳을 의미한다. 영어로는 evangelism, energy, experience라는 의미의 e-room이다. 즉 청년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하늘의 능력이 공급되며 하나님을 경험하는 공간이 되리라는 꿈을 담은 곳이다. 갈수록 청년 대학생들이 줄어만 가는 한국교회의 현실 속에 이 공간은 청년부흥을 향한 새로운 기대와 소망을 준다.

첫째로 ‘이룸’은 ‘가다리는 공동체’가 아니라 ‘찾아가는 공동체’의 모델이 될 것이다. 지금은 갈수록 젊은이들의 숫자가 줄어드는 저출산시대이다. 게다가 교회는 갈수록 젊은이들에게 매력을 잃어가고 있는 시대이다. 이러한 시대에 청년부흥의 대안은 ‘가다리는 공동체’에서 ‘찾아가는 공동체’로의 전환이다. 즉 청년들이 오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청년들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서 그들과 소통하며 공감하며 그들의 눈높이에 맞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청년희망공간 이룸’은 청년부흥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다. 대학로는 캠퍼스와 문화시설의 밀집지역이며 유동인구의 대부분이 20-30대인 젊은이의 거리이다. ‘이룸’은 이러한 대학로 한복판으로 교회가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게 찾아가는 시도이다. 이렇게 교회 공동체가 세상을 향해 나아가 손을 내밀 때 새로운 청년 부흥, 캠퍼스 부흥의 꿈이 시작될 것이다.

둘째로 ‘이룸’은 ‘캠퍼스선교’와 ‘직장선교’, ‘도시선교’의 베이스캠프가 될 것이다. ‘청년희망공간 이룸’은 청년들과 대학생들의 삶의 현장 한 가운데인 대학로에 자리 잡고 있다. 이곳을 중심으로 세상을 섬기는 거룩한 젊은이들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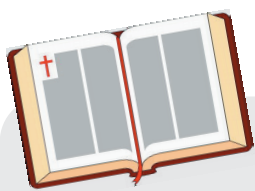
이곳에서 대학생들과 청년들은 아침마다 홀리스타(Holystar) 새벽기도회에서 함께 기도하고 각자의 삶의 현장으로 파송될 것이다. 또한 캠퍼스 선교와 직장선교를 위한 베이스캠프로서 대학생들과 직장인들을 위한 맞춤형양육과 제자훈련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젊은이들과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세미나와 특강들도 준비 중이다. 그리고 이곳을 중심으로 청

년들은 지역사회로 나아가 거리를 청소하고 어려운 이웃을 섬기는 섬김의 사역도 진행된다.

셋째로 ‘이룸’은 다음 세대를 섬기는 ‘문화선교’의 새로운 대안이 될 것이다. 대학로는 각종 공연들이 밀집된 공연의 거리이다. 그리고 사람들이 문화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찾아오는 문화의 거리이다. ‘청년희망공간 이룸’은 이러한 문화의 중심 대학로에서 새로운 세대를 향한 새로운 예배를 준비하고 있다.

교회에 매력을 잃어버린 세대를 위한 창의적인 새로운 시도가 있는 열린예배가 세워질 것이며 청년들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공동체가 세워질 것이다. 또한 청년대학생들의 문화적인 눈높이에 맞게 그들을 찾아가는 사역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새로운 예배와 사역을 통해 믿지 않는 청년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청년부흥의 역사가 시작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위해 예비하신 ‘청년희망공간 이룸(e-room)’을 통해 이뤄 가실 크고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고 소망한다. 이 공간을 통해 잃어버린 청년들이 주께 돌아오는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 주일강단



이재훈 목사

## 교회의 존재목적

출 19:1~8

“교회의 존재목적은 특별한 보물로,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민족으로, 주님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계획이 이뤄집니다.”

배에서 사용하는 기구 중에 발음이 비슷한 두 개의 기구가 있습니다. 하나는 닻이고, 또 다른 하나는 돛입니다. 닻은 영어로 ‘Anchor’입니다. 배가 정박하거나 정지되어 있을 때 파도에 휩쓸려 가지 않도록 도와주는 도구입니다. 또 하나는 돛입니다. 영어로 ‘Sail’입니다. 비교적 작은 배가 바람을 이용해 목적지로 항할 수 있도록 방향을 조정하는 기구입니다. 불어오는 도전과 변화를 에너지로 바꾸어서 목적지로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기구입니다.

어느 조직이나 공동체에는 변하지 말아야 할 목적과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아주 근본적인 것입니다. 시대와 문화, 상황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닻처럼 뿌리내야 할 비전이 있습니다. 동시에 시대와 문화, 도전과 변화에 따라 그것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에너지로 변화시켜 주는 돛과 같은 전략도 필요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닻과 같이 결코 변할 수 없는, 변해서는 안 되는 존재목적적이어야 합니다. 그것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생명력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 출애굽의 진정한 목적 ‘구속’

오늘 본문은 교회의 존재 목적을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출애굽 한 백성들이 시내광야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가나안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지 중해 연안의 해변길을 놔두고 남동쪽에 있는 시내광야를 거쳐 돌아가는 힘들고, 어려운 길을 택하셨을까요. 쉽고, 빠르고, 희생 없고, 고생하지 않고 갈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렵고 힘든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바로 출애굽 한 백성들의 정체성을 깨닫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한 이후에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왜 광야에서 고생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3개월 전까지만 해도 애굽에서 위험과 학대받으면서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를 울부짖었는데 그 기억은 벌써 잊어버렸습니다. 왜 지금 광야에서 고생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만 하면서 자신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을 것입니다. 바로 이 시점에 하나님은 그들을 시내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왜 출애굽 했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분명한 메시지를 주

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은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출애굽기 19장 이하에 나오는 말씀들을 통해서 그들이 왜 출애굽을 했으며, 그들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히 깨닫게 하셨습니다. 출애굽은 하나님의 구속입니다. 구원은 보편적인 문화를 초월한 개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구원이 무엇이나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구원의 의미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시대의 문화적인 용어밖에 설명할 수 없습니다.

당시에는 사람들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 단어는 구속 밖에 없었습니다. 이 시대의 구속은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갇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시대 구속과 당시의 구속의 의미는 다릅니다. 구속이라는 단어는 여러가지 문화적, 시대적 상황에 따라 다르게 쓰였는데 대표적인 두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하나는 친족 중 한 사람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져서 빚을 지고 갚지 못해 파산했을 때, 친족 중 한 사람이 빚을 대신 갚아주고, 대가를 지불해서 빚진 사람이 자유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주었을 때 그 사람을 구속자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어로 이러한 행위를 가리켜 ‘갈’이라고 합니다. 그 행위를 한 사람을 ‘고엘’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의 사례는 남자가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었을 경우 그 당시 문화에서 여성은 자신의 이름으로 그 어떤 재산도 소유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들 없는 집의 남편이 죽으면 모든 재산은 한꺼번에 법적인 근거를 잃어버립니다. 대신 죽은 남자와 가장 가까운 가족이나 친척이 그 아내를 가족으로 맞이해 아들을 낳으면 그 자손이 그 아버지의 재산을 이어받을 수 있었습니다. 당시 홀로 된 여인과 재산을 유지하는 풍습입니다. 이 풍습은 강제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을 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처벌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도덕적인 제도였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었습니다.

성경에 이러한 구속 문화들이 배경에 깔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한 사건을 ‘내가 너희를 구속했다’고 설명하십니다. 여기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상태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만이 목적이었다면 출애굽 한 이후 그냥 풀어주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상태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으

로 이끌어내는 것이 더 큰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광야가 필요했습니다. 율법을 주셔야만 했고, 그들은 많은 시련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 은혜를 먼저 베푸시는 하나님

여러분, 교회란 무엇입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속받은 백성들입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만찬을 하시면서 그 만찬을 자신의 죽음과 연결시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할 때 사용했던 어린양의 희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때문에 출애굽은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피로 구속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출애굽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 죽으셨다는 것은 어린양의 피로 구속받은 백성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공동체입니다. 단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구속받은 공동체인 교회는 도대체 왜 존재하는 것이며,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일까요.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주시는 말씀이 출애굽기 19장 1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시내광야에 백성들을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왜 너희들이 출애굽 했으며,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지를 그들에게 가르쳐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그들의 과거를 상기시켰습니다.

“내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행한 일을 너희가 직접 보았고 독수리 날개에 앉아 나르듯 내가 너희를 내게로 데려온 것을 보았다”(4절).

출애굽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과 노력, 투쟁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라 독수리 날개로 앉아 나르듯 전적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이뤄진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먼저 순종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먼저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 말씀이 왜 중요합니까. 이 후에 나오는 요구의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지키면 내 백성으로 맞이해 주겠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은혜

를 먼저 베푸시고 나중에 ‘이렇게 살아라’고 요구하시는 분입니다.

## 구원은 오직 은혜로!

많은 사람들이 구약과 신약의 차이를 오해합니다. 구약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은 시대이고, 신약은 율법과 상관없이 믿음과 은혜로 구원을 얻는 시대라고 이해합니다. 이것은 완전히 성경을 오해하는 것이고, 왜곡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도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구원과 은혜를 베풀어주시고, 그 이후에 순종을 요구하셨습니다. 율법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응답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출애굽의 은혜를 베풀어주시고 나서 순종을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명령과 요구가 부담이 되면 안 되는 이유는 과거에 베풀어 주신 은혜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힘들고, 부담스럽고, 하나님과의 동행이 벅잡게 느껴지면 과거에 받았던 은혜를 기억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먼저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미래에 이루실 계획을 보게 하십니다. 그 계획은 바로 선교입니다.

“그러니 이제 너희가 내게 온전히 순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들 가운데 특별한 내 보물이 될 것이다. 온 땅이 다 내 것이지만”(5절).

후반부에 나오는 ‘온 땅이 다 내 것이지만’은 ‘온 땅이 다 내 것이기 때문에’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출애굽 한 백성들은 지금 시내광야에 있습니다. 주변에 산과 광야밖에 보이지 않는 지역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모든 민족과 온 땅을 바라보는 안목을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민족,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관점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특별한 내 보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한 관계는 모든 민족과 온 세상이라는 안목에서만 해석될 수 있습니다.

## 모든 족속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신음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출 2:24).

(13면에 계속)

## 21세기 목회 트렌드

## SNS 목회시대를



함태경 본부장  
(CGNTV 경영기획본부)

우리는 예전과 전혀 다른 미디어 환경 속에서 살아지고 있다. 특히 인터넷 발전과 스마트폰 보급은 세계를 하나의 영역으로 융합하면서 기존의 의사소통체계 혁신과 세대를 초월한 ‘통합’, ‘다양’, ‘연결’이라는 ‘신문화(New Culture)’를 탄생시켰다. 이는 기존의 전통과 관습에만 얽매이지 않는 열린 사고와 표현의 자유를 이끌어내며 다양한 사회적 상호작용의 매개를 가능케 하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ocial Networking Services, 이하 SNS) 시대를 활짝 열었다.

SNS로 대표되는 온라인 사회연결망은 관계 맺기, 추천 등을 통해 정보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이용자의 편의를 극대화하는 혁신의 아이콘이다. 실시간성, 쌍방향성, 확장성 등 이용자 간 원심적인 상호작용에 따라 파급력을 높인 커뮤니케이션 수단이기도 하다. SNS는 ‘네트워크화된 대중(Networked Publics)’을 출현시켜 친교를 뛰어넘어 사회운동이나 정치운동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컴퓨터와 인터넷, 스마트폰으로 대표되는 디지털 기술사회를 살아가는 데 과거와 같은 획일적인 세대 구분은 맞지 않을 수 있다. 디지털 기술이라는 새로운 과학기술에 익숙한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SNS를 통해 사이버공동체에 참여하면서 상호간 격차가 개선될 개연성이 크기 때문이다. 기존 세대 구분을 초월한 ‘소셜네트워크세대’는 자기표현에 대한 열망이 강하고 보다 감성적이고 신속성을 담보하면서도 공동체적인 인정을 갈구하고 있다. 이 같은 혁명적 메커니즘은 예측이 어려울 정도로 빠르게 우리의 생활과 사회변동을 초래하고 있지만 유감스럽게도 많은 교회가 이러한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 SNS,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자 삶의 문화

과거는 정보를 매스미디어를 통해 일방적으로 전달받았다면 현재는 카카오톡, 라인,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등 다양한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쌍방향으로 소통한다. 일방적인 메시지는 보다 나은 정보가 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 정보는 나눌수록 풍부해지고 공감지수, 감동지수를 더욱 높여준다. ‘개방’, ‘참여’, ‘공유’로 대표되는 소셜미디어의 장점에 따라 경험을 판매하고 경험을 소비하는 ‘경험 만능주의’를 만

들어가고 있는 듯하다. SNS는 전 지구적으로 편재한 생활의 일부가 됐다. 이를 반영이나 하듯 페이스북, 구글플러스와 같은 보편화된 SNS 외에도 스냅챗(Snapchat), 텀블러(Tumblr)와 같은 비교적 신흥 SNS들이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장르별, 지역별로 특정 SNS가 강세를 나타내기도 한다. 장르별로는 사진SNS인 인스타그램(Instagram), 소셜뉴스서비스인 레드잇(Reddit) 등이, 국가별로는 중국의 텐센트 웨이보(Tencent Weibo), 남미지역의 오르kut(Orkut) 등이 글로벌 SNS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SNS 이용 추이 분석’ 보고에 따르면 2013년 우리나라의 SNS 이용률은 평균 31.3%에 달했다. 2012년 대비 7.8% 증가한 수치다. 연령대별로는 20대가 69.3%로 가장 높은 이용률을 보였다. 뒤를 이어 10대(48.7%), 30대(46.9%), 40대(28.8%) 순으로 조사됐다. SNS 이용자 하루 평균 이용량은 72.8분. 종합해보면 우리나라 인구 3명 당 1명이 하루 1시간 넘게 SNS를 이용하고 있는 셈이다. SNS 서비스별 이용률을 보면 카카오톡이 55.4%로 1위를 차지했다. 페이스북, 트위터, 싸이월드 미니홈피가 그 뒤를 이었다. 이용률 순위는 2012년, 2013년 모두 동일하게 나타났다. 특히 카카오톡이 2012년 31.5%에서 2013년 55.4%로 23.9% 포인트 증가했다. 반면 페이스북, 트위터 등 다른 SNS 서비스는 모두 감소해 서비스별 이용률 격차가 커진 것으로 드러났다. 2013년 SNS 서비스 1위사로 이용률이 집중된 것을 볼 때 사용자들이 몰릴 수록 사용자가 계속 늘어나는 이른바 ‘네트워크 효과(Network Effect)’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시간의 경과와 경쟁에 따라 SNS 서비스별로 부침이 있을 수 있지만 현재 대중이 SNS를 외면할 가능성이 제로에 가깝다.

같은 기간 우리나라 크리스천의 경우는 어떠한가. 교회정보기술연구원이 목사, 강도사, 전도사 등 교역자 27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3년 교회정보화 현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9%가 SNS를 사용하고 있다. 66%는 목회현장에서 SNS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교회현장에서 SNS 사용 현황조사’에서 ‘SNS를 사용하고 있나?’는 질문에 245명(89%)이 ‘그렇다’고 답했다. ‘SNS(메신저) 서비스를 목회현장에서 사용 중이냐?’는 질문에는 180명(66%)이 ‘그렇다’고 답했다. 사용 중인 서비스(중복 포함)는 카카오톡 241명(33%), 페이스북 157명(22%), 카카오톡 134명(19%), 네이버 밴드 85명(12%), 다음 마이피플 47명(7%), 트위터 31명(4%), 구글플러스 12명(2%)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중 52%, 즉 목회자

2명 중 1명은 국민앱인 카카오톡과 카카오톡스토리를 사용하고 있다. 페이스북의 경우는 5명의 목회자중 1명꼴로 이용하고 있다.

## SNS, 목회생태계도 바꾼다

소셜미디어의 활용과 가능성은 목회 현장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과거 목회가 시간과 장소, 대상에 따라 영향을 받았다면 SNS의 발달에 따라 현대 목회는 오프라인, 온라인 상 전전후후케어시스템의 필요를 요구받게 됐다. SNS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실시간 질문과 응답을 원활하게 하고 내면의 세계까지 깊숙이 드러나게 하는 등 ‘신앙생활의 개인화’와 ‘복음의 집중성’을 촉진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기독교전문조사기관인 바나그룹의 조사에 따르면 “향후 2년 내 SNS가 목회의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라고 응답한 미국 목회자 비율이 2011년 51%에서 2013년 65%로 늘어났다.

이주노동자를 위한 목회에도 스마트폰의 활용이 매우 유의미할 것이다. 서울에서 사는 이주노동자 10명 가운데 9명꼴로 스마트폰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3월 2일 서울시가 만 19살 이상 이주노동자 700명을 대상으로 한 ‘서울 거주 외국인주민 생활환경 조사’에 따르면 이들의 88.3%가 인터넷이 가능한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컴퓨터를 통한 인터넷 이용률(42.1%)과 견줘 크게 높은 수준이다. 집에서 인터넷을 하려면 퇴근 뒤 시간을 내야 하지만 모바일은 자투리 시간을 활용할 수 있어 소외계층이나 빈곤계층도 얼마든지 이용 가능하다. 이주노동자가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를 이용하는 비율은 70%로 카페나 블로그(28.4%) 이용 비율보다 높았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페이스북 등이 외국인에게 익숙한 환경으로 제공되고 고향의 가족들과도 연락하기 쉽다는 측면이 영향을 줬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SNS목회도 끊임없이 업그레이드될 가능성이 크다. 140자 이하의 단문 메시지를 올리는 트위터, 글 내용이 중심이 되는 페이스북과 더불어 사진꾸미기 기능 등으로 젊은 세대, 특히 20-30대 여성에게 폭발적으로 인기를 끄는 인스타그램과 같은 이미지SNS가 SNS 목회에도 활용될 수 있다. 젊은 층의 경우 복잡한 문자보다 사진, 동영상 등 더 선호하기에 그에 맞는 사이버상의 목회적인 접근이 필요한 것이다. 시장조사업체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2013년 1월 인스타그램의 월간 이용자는 22만4300여명에 불과했다. 하지만 지난 2월 현재 31만5600여명으로 14배 급성장을 보였다. 2010년 미국에서 서비스를 시작한 인스타그

램은 지난해 말 전 세계적으로 월 평균 이용자가 3억 명을 돌파했다. 트위터(월 이용자 2억8400만 명)를 제치고 페이스북에 이어 세계 2위로 등극했다.

SNS목회가 가장 쉽게 변화시킬 수 있는 게 심방과 교회 내 각종 모임의 풍경이다. 성도의 집을 방문하는 심방이 1세대 버전, 교회나 직장 등 제3의 장소에서의 심방이 2세대 버전이라면 SNS는 수시로 심방하는 3세대 버전 기능이 가능하다. 이 뿐만 아니라 순회(또는 구역)모임 등 교회 내 모임 공지와 실시간 대화가 카카오톡, 라인, 밴드 등을 통해 이뤄지면서 시간과 공간, 대상의 제약을 뛰어넘을 수 있다.

SNS는 목회자도 성도도 권위 의식을 내려놓고 친밀함을 유지하도록 해준다. 직접 만나 이야기하는 것만큼 따뜻한 말 한 마디가 막힌 벽을 뚫 수 있다. 개인의 소소한 이야기를 모두 공유할 수도 있다. 맛집에서 찍은 인증샷, 여행지에서의 감동 등 이야기거리가 풍부하다. 성도들과의 교제 뿐 아니라 부교역자, 임직자, 예배봉사자 등 다양한 그룹과의 나눔이 실시간으로 가능한 것도 SNS의 장점이다. 전국 방방곡곡, 전 세계 목회자들과도 쉽게 친분을 쌓을 수 있다. 자연히 생각의 지경이 넓어지고 다양하고 유용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다.

SNS를 통해 설교나 신앙고백을 손쉽게 접하면서 믿음을 키워나가는 것은 긍정적이다. 초신자의 호기심부터 신학적인 성찰까지 어떤 주제든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다. 또 SNS에선 한 사용자가 잘못된 신앙관을 표현했을 경우 다른 여러 사용자들의 조언에 따라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진다. SNS는 선교지의 생생한 소식을 공유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 SNS, 활용하기 나름인 ‘전인적 놀이터’

현재 적잖은 목회자들이 SNS를 커뮤니케이션과 목회, 사역 도구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고민거리를 솔직히 털어놓아서 SNS의 많은 친구들로부터 공감과 지지를 받는 목회자도 있다. 트위터는 불신자들과의 공감과 소통을 위해, 페이스북은 성도들의 신앙과 일상의 조언 등을 위해 사용하기도 한다. 또 목회자는 수시로 성경 묵상 내용과 간증, 일상의 단상 등을 올려 공유하고 토론하는 등 소통의 공간으로 이용한다. 트위터나 페이스북을 통해 나누었던 내용이 책으로 만들어 지기도 한다. 페이스북보다 페이스북 페이지를 선호하는 목회자도 있다. 페이스북은 최대 5000명까지 친구를 둘 수 있다. 하지만 페이스북 페이지는 제한이 없기 때문이다.

# 준비하라



목회자들은 SNS상에서 이 시대와 공감할 수 있는 언어로 바뀐 ‘상황화된’ 복음을 제시하려고 애쓴다. 어떤 목회자는 SNS상에서 젊은이들이 의도성을 갖고 접근하는 걸 거부하는 경향이 있다고 판단해 매우 조심스럽게 애용한다. 다양한 글과 영상, 만화, 사진이미지 등의 정보가 넘쳐나는 교회의 페이스북도 있다. 이 때문에 ‘폐친’의 ‘좋아요’와 댓글이 넘쳐나기도 한다. 어떤 목회자는 매일 일정한 시간에 트위터와 페이스북에 직접 목상하고 설교한 동영상상을 올린다. 페이스북 친구들과 트위터 친구들은 이 영상을 보고 간절히 기도한다.

SNS를 선호하는 목회자들의 반응은 다음과 같다.

“모두가 계급장을 떼고 친구가 될 수 있는 매우 적절한 수단이다.”

“목회를 오래 하다보면 기성세대와의 소통엔 능하지만 다음세대와는 어딘지 모르게 간극이 있을 수 있는데 SNS는 미래세대와의 접촉점을 구축해줘 그들의 고민을 읽어내고 최선의 처방전을 제시하는 데까지 이르는 더없이 좋은 연결고리다.”

목회자 외에도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SNS를 소통의 수단으로 사용한다. 특히 기독교 연예인의 경우 기독교의 정체성과 자신의 삶을 녹여낸 글이나 사진, 동영상 등으로 많은 이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연예인들의 감사, 행복, 축복의 글들이 실제로 화제가 되기도 한다.

SNS의 강점은 무엇일까. 목회자와 성도 간 거리를 좁혀줄 수 있다는 점이다. 성도가 목회자에게 SNS를 통해 궁금했던 질문들을 할 수 있다. 목회자는 성도들의 신앙상담을 일일이 대응해줄 수 있다. 1대 1 또는 1대 다수의 쌍방향 소통이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실시간으로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스마트폰에 익숙한 20-30대 기독교인들의 접촉점도 넓힐 수 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약한 이들에게도 목회자의 권면은 용기와 희망, 믿음을 갖는 계기를 제공해줄 수 있다. 또 짧은 시간 내에 수많은 사람에게 특정 사실을 알릴 수 있는 것도 이점이다. 일방적 관계보다 쌍방향 소통을 통해 친밀감을 형성하고 메시지에 대한 반응과 피드백을 쉽게 얻을 수 있다. 단시간에 나와 다른 삶과 생각을 접하고 존중할 수 있게 한다. SNS가 ‘디지털 시대의 노방전도, 골방선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일반 명언이나 속담, 기독교 명언을 활용해 복음이나 신앙생활의 핵심가치를 짧은 문장으로 작성하고 강력한 멘트로 지속적으로 소통한 것도 필요하다. 페이스북 친구나 트위터 팔로워 중 믿지 않는 사람들도 비교적 거부감 없이 복음을

접하도록 해야 한다. 여기에는 짧은 문장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복음을 담아내느냐가 관건이다. 전도 대상자가 부담 없이 볼 수 있도록 3분 내외 모바일 동영상 콘텐츠를 SNS를 통해 전달하면 효과가 있을 것이다. SNS를 통한 전도 방법으로 트위터의 반경 1km 지역기반서비스를 이용해 근거리에서 있는 전도 대상자를 발굴해 관계를 맺은 뒤 교회로 인도하도록 하는 게 있다. CGNTV가 지난 9일 잠금화면을 활용한 ‘CGNTV하모니’ 앱을 출시한 것도 스마트폰을 켜 때마다 성경말씀, 명언, 개인 또는 중보기도문, 그룹방 소식 등을 보고 잠시나마 하나님 나라와 우리의 주변을 살펴볼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

국내의 친구들이 올리는 댓글을 보다 보면 목회의 지평이 넓어질 수 있다. 물론 빨리 반응을 보인다는 게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닐 수 있다. SNS 중독이 오히려 신앙생활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온라인을 유일한 삶의 공간으로 착각해 삶의 우선순위를 SNS에 둘 수 있다. 또 경계해야 할 것은 SNS상에 글이 일단 노출된 뒤 문제가 발생할 경우 수습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SNS 가운데 폐쇄적인 카카오톡, 밴드와는 달리 개방적인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은 담고 있는 내용에 따라 불필요한 논쟁의 빌미가 되거나 안티기독교 활동에 오용될 수 있다. 실제로 페이스북 친구가 상당한 유명 목회자의 경우 ‘정의가 지나치면 불의가 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가 수많은 비판 댓글에 시달려야 했다. 이처럼 SNS는 자칫 불필요하게 날선 공방이 오가는 또 다른 ‘전쟁터’가 될 수 있다. 문제 제기과 반박, 재반박, 찬반 의견이 순식간에 쏟아지는 SNS의 특성상 자칫 건전한 토론마저 감정싸움으로 변질된다. 사이버 이단세력이 SNS로 믿음이 깊지 않은 성도들을 미혹할 수도 있다. “여러 차례 비판하는 댓글을 다는 사람이 있어 살펴보니 특정 이단 세력을 옹호하는 글을 자주 쓰는 사람이었다”는 얘기가 공공연하게 돈다. 전문가들은 하나님과의 만남 자체를 지나치게 가볍게 만들 수 있다고 우려한다. 예배당에

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보다 집이나 사무실 등지에서 SNS의 글을 보며 묵상하는 것을 더 선호할 수 있기 때문이다. SNS에 지나치게 의존하면 영성이 오히려 약화될 수 있다는 논리다.

SNS 목회라는 측면에서는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인다. 왜냐하면 국내 목회자 가운데 트위터 팔로워가 18만4100여명에 달하는 목회자가 있지만 타종교인과 비교하면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한 유명 스님은 트위터 팔로워가 97만2000여명에 이른다. 미국 목회자와 비교하면 더 큰 차이를 보인다. 릭 워렌 목사는 팔로워 158만명, 존 맥스웰 목사는 팔로워 123만7000여명에 달한다. 미국 목회자들은 SNS 활용 플랫폼으로 웹사이트를 비롯해 블로그와 페이스북, 트위터, 비메오(vimeo·동영상 클립 공유사이트), 유튜브, 플릭커(flickr·태그 기반 인터넷 앨범 서비스) 등을 폭넓게 사용한다. 팟캐스트와 어플도 활용한다. 한국의 경우 팟캐스트가 교회의 크기 유무와 관계없이 사역의 주요 수단 중 하나로 떠올라 목회자나 교회들이 활용하는 사례가 늘지만 인기 순위나 영향력에서는 일반 콘텐츠와는 비교 대상조차 되지 못한다. 유명 스타 스님의 경우 종교영역을 넘어 일반영역에서조차 최상위 인기를 구가하고 있다.

SNS의 본질은 진정성이다. 오랜 시간 자신이 스스로 지켜온 삶의 철학에서 나오는 이미지나 소통이 아니면 순간적으로 통할지 모르지만 결코 길게 타인으로부터 지지나 공감을 받기 어렵다. 빌게이츠의 경우 그가 은퇴한 후 자선사업가로 활동하는데 일부 긍정적인 이미지와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 회장 재직 시절부터 스스로 자선에 대한 일관적이고 실천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다. SNS가 한 개인의 이미지를 단순히 효과적으로 표현하고자 하는데 사용되는 시대적 전달 매체 내지 만능소통매체가 아니라는 뜻이다.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데 있어 SNS의 특성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140자로 빠른 소통과 확산이

가능한 트위터를 전달매체로 삼고 이렇게 모인 사람들을 사진, 동영상, 장문의 글 등 보다 많은 정보를 모아 커뮤니티를 조성할 수 있는 페이스북으로 연동, 통합시키는 방식이 그 예이다.

복음의 본질은 놓치지 말아야 한다. 아울러 그 복음을 어떤 도구를 통해 전할 것인지는 매우 중요하다. 어머니가 당근을 먹지 않는 어린이를 위해 다양한 요리법을 통해 당근을 먹을 수 있도록 하듯이 복음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편하게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고민해야 한다. 그 중 유용하고 효율적인 방법 중 하나가 바로 SNS이다. SNS 활용이 아직은 교회나 목회자를 알리는 홍보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보다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SNS란 그릇에 어떻게 복음을 담아내느냐가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SNS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목회자 대상 미디어교육이 시급하다. 인터넷이 각광을 받던 때와 마찬가지로 SNS 역시 목회와 선교 목적을 달성할 다양한 콘텐츠를 필요로 한다. 이를 위해서는 메시지 내용이 단순하거나 편향적이지 말아야 한다.

풍부한 콘텐츠를 보유해 많은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필요하다면 SNS 플랫폼 변화도 시도해야 한다. 시대 변화에 따라 복음을 전하는 수단이 달라진다. 급변하는 매체를 어떻게 거룩한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단순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확장된 삶의 영역이 돼버린 SNS를 통해 변하지 않은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또 다른 선물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통전적인 성경적 세계관으로 무장하고 전통적인 미디어, 기성 미디어와 새로운 미디어의 상호작용을 위한 창의적이고 통합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과거에 경험하지 못했던 엄청난 나고 다이나믹한 변화가 SNS에서 이뤄지고 있음을 교회와 기독교 리더십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의료선교팀 CMN의 해외사역 모습. 마지막 사진은 올해 설에 인도네시아로 아웃리치를 다녀온 드림팀 사역 모습.

## 재난과 환자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간다

### 청진기 들고 땅 끝 누비는 의료선교팀 'CMN'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마 4:23).

예수님은 공생애 사역을 시작하면서 가르치는 것과 복음 전파와 병 고치는 일을 동시에 하셨다. 치유는 예수님 사역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다. 백안(盲人)의 선교사들도 조선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 가장 먼저 병원을 세우고, 질병을 치료했다. 선교하는 교회 온누리교회도 일찍부터 의료선교팀을 만들어 국내외를 막론하고 아픈 사람들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찾아가 돕고 있다. 청진기 들고 땅 끝까지 가는 'CMN(Christian Medical Network)' 이 바로 그 주인공이다.

#### 의료선교의 선봉장

의료선교팀 CMN은 1985년에 만들어졌다. 5개 팀이 자발적으로 사역해왔다. 2005년 동남아시아 쓰나미 피해지역과 2006년 강원도 대규모 수

해사태 발생지역에 의료선교팀과 긴급재난구조팀을 파견하면서 의료선교팀의 사회봉사활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재확인했다. 이러한 이유에서 2006년 9월 램프온(Lamp On)을 발족했다. 같은해 11월에는 기존의료팀을 CMN으로 묶어 의료선교의 선봉장이 되었다.

CMN은 현장사역, 지원, 네트워크를 중심 축으로 사역하고 있다. 현장사역팀은 의료사역을 하고 있다. 7개(마하나임팀, BEE팀, 마노아팀, 드림팀, 라파팀, 토브팀, 샬롬팀)가 있다.

마하나임팀은 의료팀 중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한다. 매달 넷째 주일 농어촌교회를 섬기고 있다. 3월 보은 화남교회, 4월 예산 한미음교회, 5월 부여 칠산교회, 6월 횡성 초원교회를 섬길 예정이다.

BEE팀은 7개 팀 중 가장 규모가 크다. 미용팀이 활발한 것이 특징이다. 매달 둘째 주일에는 농어촌 미자립교회와 외국인 근로자교회를, 셋째 주 목요일에는 서울역 노숙자들을 섬긴다. 마노아팀

은 매달 셋째 주일 농어촌교회를 방문한다. 3월 강화도교회, 4월과 9월 양지 비전빌리지, 5월과 10월 평택 온누리교회, 6월 강원 양구 시온감리교회, 12월 인천 아가페사역을 찾아가갈 예정이다.

드림팀은 삶을 나누는 공동체다. 매주 토요일 정기 모임을 하고 있다. 매달 둘째 주일에는 김포 M센터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을 섬기고 있다.

라파팀은 매주일 서빙고 온누리교회에서 진료 봉사(4시~6시)를 하고 있다. 매달 셋째 주일에는 안산 M센터에서 진료봉사(3시~6시)를 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2000선교본부와 연계해 국내에 들어온 선교사가 가정의 1차 진료를 해 줄 예정이다.

토브팀은 양재 온누리교회의 유일한 의료선교팀이다. 매달 첫째, 셋째 주일에 탈북민을 위한 치과진료소를 운영하고 있다. 매달 넷째 주일에는 한중사랑교회에서 조선족 동포들을 섬기고 있다.

샬롬팀은 수원온누리교회를 중심으로 형성됐다. 매월 둘째 주일 안산 M센터에서 섬기고 있다. 구미 도개중앙교회와 평택 기지촌여성들도 섬

기고 있다.

지원팀은 이미용, 수기치료, 발마사지, 챔버, 국악, 영정사진 찍어주기 사역을 지원하고 있다. 의료봉사 외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이미용, 수기치료, 발마사지는 매년 2회 스쿨을 열고 살기교육을 실시한다.

네트워크팀은 중보기도, 약부, 선교사케어, 의료데스크팀이 있다. 중보기도팀은 '매일 그리고 꾸준히'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기도제목과 큐티 나눔을 날마다 SNS를 통해 공유하고 있다.

약무팀은 약품을 관리하고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선교사케어팀은 해외 거주 선교사와 가족들의 건강 상담 및 원활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의료데스크팀은 주일마다 교회로비에 데스크를 설치하고, 혹시 모를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즉각적으로 돕는다. 교회 주요행사 때에도 의료데스크를 운영한다.

CMN은 재난과 환자가 있는 곳은 어디든지 달려간다. 의료인과 비의료인들이 협력하는 사역팀이다. 의료봉사를 통해 세상에 희망을 주고, 사회참여에 대한 훌륭한 모델이 되고 있다.

문의: 오전평 간사 02-3215-3786

#### ■ CMN 드림팀 아웃리치 간증



/ 이도희 집사와 가족들(CMN 드림팀)

### 길을 잃고 헤매던 나를 깊이 만나주셨다

우리 가족은 설 연휴기간 동안 휴가를 즐길 계획이었다. 그런데 아내가 아웃리치를 가지고 말했다. 아이들과 나는 안 가겠다고 버텼다. 하나님은 나와 아이들의 마음을 돌리셨다. 온 가족이 함께 인도네시아로 아웃리치를 가게 됐다.

나는 육신만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상태로 떠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그러면서도 왜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그곳에 보내셨는지 궁금했다. 내가 소속된 CMN 드림팀은 주제 말씀과 개인 기도제목을 놓고 새벽을 깨우며 기도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호 6:6)가 주제 말

씀이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요 14:27)였다. 기도제목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웃리치가 되는 것, 하나님을 깊게 만나는 시간되는 것, 5박 6일간의 일정이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는 것이었다. 5박 6일 일정은 힘들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국내선을 이용해 팔렘방으로, 그곳에서 다시 버스를 6시간 타고 푸꾸물리로 이동해야 했다. 사역지를 네 곳이나 옮겨다녀야 하는 바쁜 일정

이었다. 바쁜 일정 탓에 다른 곳을 구경할 여유가 없었다. 이 시간동안 근심, 걱정, 세상 생각 없이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치과의사라는 달란트를 통해 성도들과 주민들을 섬길 수 있었다. 그 나눔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할 때 주시는 평안이 어떤 느낌인지, 또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게 됐다.

마지막 날 저녁에 현지 교인들과 연합한 성령집회가 열렸다. 서로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그곳의 형제자매들과 함께 기도했다. 그때 나는 옥합을 깨뜨리지 못하고 움켜쥐고 있는 나를 발견했다.

나는 영적으로 장님이었음을 깨달았다. 주체할 수 없이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다. 이 눈물은 화개의 눈물, 인도네시아를 위한 눈물, 푸꾸물리오 교회를 향한 주님의 눈물이었다. 성령님의 강한 임재를 체험하면서 단절되었던 방언의 은사가 회복되는 선물까지 얻었다.

이어서 현지 형제자매들이 준비한 세족식이 있었다. 세족을 받을 때 그 손이 사람의 손길이 아니라, 나를 만지시는 예수님의 손길로 느껴졌다. 나는 곧바로 반응했다.

“저를 제자 삼으려고 이곳으로 부르셨군요!”

이번 아웃리치를 통해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다. 거룩한 제단을 쌓고 돌아오는 은혜의 시간이었다. 평생 잊지 못할 하나님의 흔적이었다. 예수님은 이번 아웃리치에서 길을 잃고 헤매던 나를 깊이 만나주셨다. 즐거워하시며 하나님의 안전한 울타리로 옮겨주셨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반응하며 살고 싶다.

##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입니다”

NGO 더멋진세상, 후원자 감사패 증정식  
주인공 김흥순 · 이은희 부부, 유우선 집사



NGO '더멋진세상' 고액후원자 감사패 증정식. 김흥순·이은희 부부(왼쪽 두번째)와 유우선 집사(오른쪽 두번째)

지난 11일 서빙고 담임목사실, 국제개발NGO '더멋진세상(Better World)' 후원자 감사패 증정식이 있었다. 이날 감사패를 받은 주인공은 김흥순, 이은희(소망교회) 집사 부부와 유우선 집사(온누리교회)다. 이들은 고난 가운데 만난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은혜를 기부로 표현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김흥순, 이은희 부부는 병상에서 기적적으로 회복하게 된 은혜를 받고, 감사한 마음을 기부로 표현하고 있다. NGO 더멋진세상이 실시하고 있는 '아프리카 어린이 생명살리기' 사업에 지정 기부했다. 유우선 집사는 자신의 사업 이익의 10%를 정기적으로 기부하고 있다.

이날 감사패 증정식에는 NGO 더멋진세상 회장 이재훈 목사, NGO 더멋진세상 CEO 김광동 장로, 김창옥 전도사가 참석했다.

이재훈 목사는 “오늘 감사패를 받은 분들은 육신의 아픔이라는 고난 속에서도 아프리카 어린이들을 생각하며 기부하고, 기업의 십일조를 하나님께 바치는 아름다운 일을 몸소 보여줬다. 귀한 헌신과 나눔이 분명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을 것”이라며 축하했다.

이날 감사패를 받은 유우선 집사는 친환경식품용기 판매 및 영업 대행을 하고 있는 '해피올 매니지먼트'를 운영하고 있다. 그는 사업 이익의 십일조를 NGO '더멋진세상'에 기부하고 있다.

행복한 울타리란 뜻의 회사 이름처럼, 더 멋진 세상을 만드는 울타리가 되고 있다. 연말에 기부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매월 기부로 바꿨다. 또한 판매하고 있는 친환경 제품군에 NGO 더멋진세상 마크를 넣었다. 기부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제품을 통해 NGO 더멋진세상을 홍보하고 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비하면 이익의 10%를 기부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는 유우선 집사. 그가 NGO '더멋진세상'에 기부하게 된 계기가 무엇일까?

“25년간 대기업에서 회사생활을 했어요. 잘나가는 회사원이었지요. 그런데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하면서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아오신 것처럼, 저를 찾아와 위로해 주셨어요”

유 집사가 위기를 극복하는데 온누리교회가 큰 몫을 했다. 그때 맺은 교회와의 인연이 NGO 더멋진세상으로 이어졌다.

“설립된 지 얼마 안 된 NGO 더멋진세상이 막 발을 내딛고 있는 우리 회사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기부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유 집사는 지금의 회사가 하나님에 허락한 기업이라는 믿음이 확고했다. 사회적 기업을 만드는 것이 목표다.

“해피올을 설립하고 싶은 비전이 있어요. 이익의 50%까지 기부하는 회사, 나눔을 실천하는 기업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 제게 주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부하는 돈을 아깝다고 여기는 사람들에게 도전이 되는 말이 아닐 수 없다.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십일조가 아니라 절반을 돌려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수중에 있는 것들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런 사람들에게 유 집사가 말한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은 아깝거나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청지기 정신으로 기부에 적극 동참해야 하는 이유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국제개발NGO '더멋진세상'은 가난과 질병, 재난 등으로 고통 받는 지구촌 이웃들에게 전문적, 체계적인 도움을 제공해 지역사회와 세계 속에서 정의와 화해를 구현하는 것이 목적인 NGO다. 2010년 12월 출범했다.

2011년 3월 동일본대지진으로 인한 쓰나미 피해 지역 긴급 구호를 시작, 도움이 필요로 한 지구촌 곳곳에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해외 환우 초청 수술지원, 대북지원, 아프리카 의료지원 및 식수개선, 어린이 양육 및 교육지원, 아프리카 어린이 생명 살리기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 후원자는 약 4,100여 명 정도다. 오는 4월 19일 정기 후원 약정 행사를 통해 만 명의 후원자 모집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세네갈 준공식 현장에서 고대선 부장(더멋진세상 해외사업부)

곱고 건조한 모래가 사막의 정취를 물씬 풍기는 세네갈 뽀나바 마을. 이곳이 한바탕 잔치로 들쭉였다. 예쁜 옷을 차려입은 주민들이 아이들과 함께 학교 운동장에 몰려왔다. 외진 시골인 뽀나바 마을에 세네갈 해양수산부장관과 교육감, 경찰국장, 시장 등 고위 정부 인사들과 한국대사, KOICA 관계자도 방문했다. 시골 초등학교 준공식이 정부 행사가 된 것 같았다.

나는 NGO 더멋진세상 본부 스태프로서 케르발라 초등학교 준공식에 참가했다. 황량한 모래만 눈에 들어오는 메마른 땅에 듬직하게 서 있는 학교 건물을 보니 단층 건물이지만 멋있어 보였다. 우측에 설치한 태양광 패널은 건물의 가치를 더욱 높여주고 있었다. 따가운 햇살을 피해 교실 안으로 들어갔다. 사막의 뜨거운 햇살이 비추고 있지만 교실 속은 실랑거리는 바람을 코끝으로 음미할 수 있을 만큼 쾌적하고 시원했다. 아이들이 교실에서 공부하기에 다행이라 생각되어 마음이 놓였다.

깨끗한 콘크리트 건물에 날쭉하고 환한 교실을 둘러보하니, 예전에 한 칸짜리 어두컴컴한 교실에서 3개 학년이 수업했다는 사

실이 믿어지지 않았다. 게다가 태양광 패널 설치로 어두운 공간에도 교실에 불을 밝히고 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사실은 이미 마을 근동에 소문이 자자했다. 실제로 건축 후에 아이들이 두 배 가까이 늘었다고 한다. 성대하게 진행된 준공식은 저학년 아이들의 중창과 고학년 아이들의 단막극에서 정점을 찍었다. 마치 개그 프로그램의 봉숭아학당을 보는 듯했다. 교사들과 마을 지도자를 흥내 내며 펼치는 아이들의 연기에 주민들은 공감이라도 한 듯 환한 웃음을 터뜨렸다. 현지어를 알아듣지 못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추측만 할 뿐이었지만, 계속해서 터져 나오는 주민들의 웃음을 보고 있으니 나도 웃음이 절로 나왔다. 하지만 환하게 웃는 아이들을 보며 문득 어제 보았던 이슬람학교가 떠올라 마음이 무거웠다.

학교 가는 길에 우연히 발견한 마을의 이슬람학교 가정집 마당에 그늘막을 설치하고 교실로 사용하고 있었다. 30여 명의 아이들이 조그만 칠판 앞에 모여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그 학교는 코란을 가르치는 무슬림 학교이고, 아이들은 코란을 암송하며 이슬람 교리를 배운다고 한다. 일반 공교육기관인 케르발라 초등학교에

도나오지 않는다는 말에 안타까움이 더해졌다. 이런 조그마한 시골에도 이슬람의 영향력은 차세대들 향해 강하게 미치고 있었다.

NGO 더멋진세상이 무슬림들의 마을인 뽀나바 마을에 들어와 우물을 파고, 학교를 짓고, 쓰레기장을 설치하고, 보건소에 약품을 지원하는 등 많은 활동을 펼치고 있다.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이슬람 마을에서, 가까운 친구처럼 다가가 사랑을 전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앞으로 더 해야 할 일들이 많이 남아있음을 느끼게 한다.

무엇보다도 영혼이 깨끗한 차세대 아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이들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깨끗한 환경을 제공하며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해준다면, 이들도 언젠가 그 사랑에 마음을 열 때가 오리라 믿는다.

떨감을 위해 머리에 나뭇짐을 지고, 시간날 때마다 우물에서 물을 길러야 하는 뽀나바 아이들. 태어나면서부터 코란을 배워야 하는 이들에게 NGO 더멋진세상을 통해 더 풍성한 사랑이 흘러가기를, 그 사랑의 씨앗이 마을을 진정한 더 멋진 마을로 변화시켜갈 기원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 건물 그 이상의 의미

## 신앙의 선배를 만나다

## 조선의 슈바이처로 불리던 의사

셔우드 홀 선교사  
(1893~1991)

셔우드 홀은 1893년 11월 10일 서울에서 태어난다. 셔우드 홀의 부모님은 한국에서 의료선교사로 활동하고 있었다. 셔우드 홀은 부모인 윌리엄 제임스 홀(William James Hall)과 로제타 셔우드 홀(Rosetta Sherwood Hall)은 1891년에 한국에 왔다. 1894년 평양에서 청일 전쟁 부상자들을 치료 하던 윌리엄 제임스 홀이 전염병에 걸려 한국에 온지 3년 만에 세상을 떠났다. 당시 그의 아내 로제타 홀은 임신 7개월이었다. 스물아홉 나이에 남편을 잃었다. 로제타는 둘째 딸을 낳고 1897년 한국으로 다시 돌아왔다. 그런데 평양에 병원을 세우던 중 말마져 질병으로 죽게 된다. 그러나 로제

타 홀은 선교를 중단하지 않았다. 그녀는 한국에서 45년 동안 선교사로 헌신했다. 유일하게 살아 남은 셔우드 홀은 미국 토론토에서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가 됐다. 그리고 의사 아내와 함께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다.

당시 조선 사람들은 결핵을 부끄러운 병으로 인식했다. 악귀의 기분을 상하게 하면 받는 벌로 여겼다. 치료도 주술적인 방법만 썼다. 당시 사람들은 셔우드 홀 박사에게 “이미 정해진 운명을 왜 방해하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셔우드 홀 박사는 마음을 굳건히 먹었다. 결핵환자나 결핵에 걸렸던 사람들에게 대한 사람들의 비동정적이고 잔인한 처우를 반드시 고쳐야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다.

그가 처음 일을 시작한 곳은 황해도 해주. ‘해주 구세병원’이었다. 당시 조선의 결핵은 심각한 질병이었다. 별다른 치료법이 없어 그저 지켜볼 뿐이었다. 조선의 결핵은 외국에 비해 발병률이 높았다. 인구 5명당 1명꼴로 결핵이 발병했다.

## 결핵 퇴치에 앞장서다 ‘크리스마스 썸’

셔우드 홀은 ‘해주 구세요양원’을 설립하고 본격적으로 결핵환자들을 돌보기 시작했다. 요양원은 금세 가득 찼다. 나중에는 환자수가 많아 입원 순서를 기다리기도 했다. 셔우드 홀은 적극적인 간호와 치료법으로 결핵환자들을 돌냈다. 그 결

과 수많은 조선인들을 결핵으로부터 구하게 되었다.

셔우드 홀 박사는 결핵퇴치를 위한 특별한 계획을 세웠다. 그것은 ‘크리스마스 썸’ 운동이었다. 주위 사람들에게 의견을 구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부정적인 반응뿐이었다. 하지만 셔우드 홀은 포기하지 않았다. 최초의 도안을 그렸다. 조선 민중의 지지를 얻을만한 거북선 그림이었다. 하지만 이를 불편하게 여긴 일본의 거절로 발행되지는 못했다. 셔우드 홀은 남대문으로 도안을 바꿔 허기를 받았다. 그렇게 1932년 12월 3일 우리나라 최초의 크리스마스 썸이 발행됐다. 이 썸을 처음 산사람은 헨리 아펜젤러 목사였다고 한다. 해가 지날수록 크리스마스 썸 운동은 빠르게 확산되었고, 일반인들도 결핵을 이해하게 되었다. 하지만 일본은 셔우드 홀 부부에게 영국 스파이라는 누명을 씌웠다. 셔우드 홀 가족은 14년 6개월의 한국 생활을 정리하고 인도로 떠나게 됐다. 셔우드 홀은 인도에서도 결핵퇴치에 앞장섰다. 1941년부터 1963년 은퇴할 때까지 결핵퇴치에 헌신했다.

1984년 11월에 닥터 셔우드 홀이 한국을 방문했다. 그의 나이 91세였다. 그 옆에는 88세인 아내 매리언 홀, 아들인 윌리엄 홀도 함께였다. 대한결핵협회의 공식 초청을 받은 것이었다. 셔우드 홀 부부의 한국 방문은 무려 44년만이었다. 그들은 한국 방문을 매우 행복해했다.



우리나라 최초의 크리스마스 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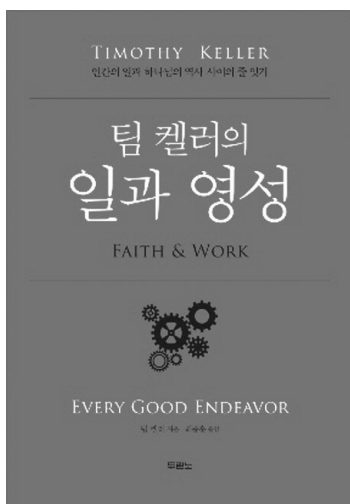
1991년 4월 5일 셔우드 홀은 98세의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 셔우드 홀의 시신은 화장을 해 한국에 왔다. 그리고 가족이 묻어있는 양화진 외국인 묘지에 합장됐다. 셔우드 홀은 한국방문 당시 양화진에 묻어있는 부모님과 여동생의 묘를 방문했다. 그 자리에서 유언을 남겼다.

“나는 지금도 한국을 사랑합니다. 내가 죽거든 내가 태어나서 자랐던 나의 사랑하는 이 나라, 또 한 내 사랑하는 부모님, 여동생이 잠들어 있는 한국 땅에 묻어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준 기자 khj@onnuri.org



내 인생의 책 이길탁 목사(대학청년부 요셉공동체)

크리스천 직장인에게 보내는  
‘직장백서(白書)’

## 팀 켈러의 &lt;일과 영성&gt;

“의미 없어 보이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그 일이 하나님의 소명이라는 것을 어떻게 확신시킬 수 있을까?”

직장 생활에 힘들어하는 청년들을 보면서 항상 가지고 있던 의문이다. 이 질문에 대답하지 못하는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오로지 돈

을 벌기 위해 출근하는 청년들이 정말 많다. 자기가 하는 일이 의미가 없다고 느껴 직장을 그만두고 선교사나 목사가 되려고 준비하는 청년들도 많다.

일터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직장선교사 양성’이라는 비전을 품고 사역하는 중 팀 켈러의 <일과 영성>이라는 책을 읽었다. 놀라웠다. 한 마디로 충격이었다. 어느 책에서도 명쾌하게 밝혀주지 않던 나의 கே게묵은 질문에 대한 답이 이 책 속에 있었다.

이 책은 크게 세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1부는 일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을 설명한다. 일은 직무에 상관없이 그 자체로 귀중한 가치가 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수단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라고 주장한다. 2부에서는 일의 왜곡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타락한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권유하는 부분이 인상적이다. 열매가 맺히지 않아도 받아들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속이 후련해졌다. 직장문제로 고민하는 청년들에게 당장 뛰어가 말해주고 싶었다. 3부에서는 복음과 직업을 연결시키고 있다.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일을 바라보아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있다.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분하는 이원론

적인 시각으로 교회일과 세상일을 구분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이 책 서문을 쓴 캐서린 알도도프는 팀 켈러가 목회하는 리디머처치에 오기 전에는 직장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야 하는지 감이 잡히질 않았다고 고백하고 있다. 직장을 통해 사역을 한다는 이야기의 대부분은 성공한 직장인이거나 돈을 많이 번 사람의 간증 정도였다고 말하고 있다. 그는 리디머처치에서 직장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해답을 찾았다고 한다.

“우리는 완벽한 모범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나침반이 되어야 한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직장인들의 관심은 속도다. 빨리 승진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길 바란다. 하루빨리 하드웨어에서 벗어나 자신의 가치를 제대로 증명할 수 있는 기회를 만나길 바란다. 때문에 해마다 연말이면 인사발령에 촉각을 곤두세운다. 더 높은 곳으로 오르려는 열망을 숨기지 않는다. ‘내가 승진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일이야’라고 자신의 생각을 정당화시킨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께서도 속도를 중히 여기실까?

이 책의 서문에는 ‘반지의 제왕’의 톨킨이 쓴 <

니글의 이파리(Leaf by Niggle)>라는 잘 알려지지 않는 소설의 내용이 등장한다. 니글이라는 화가가 있었는데, 그가 그리고 싶은 나무가 있었다. 그는 이파리 하나 그리는데 지나치게 심혈을 기울인 나머지, 나무 스케치는 커녕 이파리 하나만 그리다 죽고 만다. 이 얼마나 한심하고 황당한 인생인가.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면 바퀴가 있었지만, 대반전이 시작된다. 니글이 천국에 가게 되고, 천국의 가장자리에서 죽을 때까지 손에서 붓을 놓지 못하게 만들었던 그 나무가 있음을 보고 감격했다. “이건 선물이야!”라고 외치며 이야기가 끝난다. 그 소설의 내용과 톨킨의 삶을 통해서 팀 켈러는 인생의 사명이 성공과 성취가 아니라, 영원을 향하는 방향에 있다는 메시지를 던져준다. 직장생활로 힘들어하는 청년들에게 해 줄 말이 생겼다.

“<니글의 이파리>만 읽어도 짜증나는 직장에 대한 생각이 바뀔 것이다.”

직장에서 합계운 전투를 벌이고 있는 이 땅의 크리스천 직장인을 축복하며 그들에게 자신 있게 이 책을 추천한다. 속도빨길 권한다. 읽고 또 읽으면서 내가 살아가는 직장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뜻에 기쁘게 반응하기를 기대한다.

대한민국 기독교, 그 찬란한 역사를 만나다

# 하늘 아래 평안한 곳, 천안에 전해진 기독교

## 매봉교회와 유관순 열사 ... 3.1운동에 앞장서다

“예로부터 이르기, 백성은 순박하고 재물은 넉넉하여 편안히 생업에 종사하며 곡식농사에 힘쓴다.” 하늘 아래 가장 평안한 곳, 천안(天安). 조선시대부터 한양에서 경상도와 전라도로 내려가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교통의 요지였다. 삼남요로(三南要路) 천안삼거리가 유명한 이유다. 선비 박현수와 가생 능소와의 사랑 이야기가 서린 낭만도 있는 곳이다. 이밖에도 유명한 것이 많다. 가차, 휴게소 간식의 대명사가 된 천안호두과자, 담백한 맛이 일품인 병천순대, 임진왜란 당시 진주대첩을 승리로 이끈 충무공 김시민 장군의 고향이기도 하다. 그러나 무엇보다 ‘아우내 31만세운동’의 주역인 유관순 열사의 고향으로 유명한 곳이다. 독립운동의 대명사가 된 유관순 열사의 생가와 그녀가 어린 시절 찬송가를 부르고 성경을 외우던 매봉교회를 다녀왔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여기는 천안역. 따뜻한 봄기운이 스멀거린다. 오늘의 목적지는 호서지방 최대 독립만세운동을 주도한 유관순 열사의 생가와 그녀가 어릴 때 다녔던 매봉교회다.

천안역에서 자동차로 약 20여 분을 달려가니 한적한 전원풍경이 들어왔다. 이곳은 병천면이다. 병천 아우내시장을 지나 표지판을 따라 가면 ‘유관순 열사 기념관’이 있다. 이 기념관은 유관순 열사 탄신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만들었다. 기념관과 동상, 기념비, 추모각, 봉화대, 초혼묘 등이 조성되어 있다. 기념관 안에 들어가면 유관순 열사의 수행자기록표, 재판기록문 등의 전시물과 재판과정 모습, 서대문형무소 벽관체현, 아우내 독립만세운동 영상 등을 생생하게 볼 수 있다. 기념관 바로 옆에 위치한 아우내실내체육관을 지나 큰길을 따라 1km쯤 더 가면 유관순 열사 생가와 매봉교회가 나온다. 유관순 열사는 이곳 용두리(옛지명 지령리)에서 태어나고 자랐다. 매봉교회는 그녀가 찬송을 부르고 성경을 읽던 곳이다.

### 매봉교회와 3.1운동

천안에서 일어난 31독립만세운동을 ‘매봉교회의 독립운동’으로 보는 시각이 있을 정도로, 매봉교회는 지역에 큰 영향을 미쳤다.

매봉교회의 첫 이름은 ‘지령리 야소교당(野蘇教堂)’이다. 미감리교 선교사인 스웨어러(Wilbur C. Swearer, 한국명 서원보)는 1899년 3월 경기도 이천에서 한 남자와 가족에게 세례를 주었다. 그가 바로 이천 덕돌교회의 박해숙이다. 그의 전도 활동으로 1901년경 목천과 진천에 교회가 설립되었다. 천안읍(1915년)보다 먼저 복음이 전래되었다. 당시 선교사들은 나귀를 타고 전도여행을 다녔는데, 목천은 서울, 여주, 진천을 거쳐 충청도로 가는 길목에 있었기 때문에 충청도의 선교거점인 공주보다 먼저 복음이 들어왔다.

지령리교회는 점점 부흥해갔다. 지령리교회는 나라사랑 정신이 투철했다. 그렇기에 일제의 모진 핍박을 받아야만 했다. 우선 1905년 을사늑약 이후 의병을 도왔다는 이유로 교인 몇 명이 사살되었다. 1907년 8월 ‘대지령야소교당’의 이름으로 국채보상운동에 참여했는데, 그때 동참한 교인이 무려 82명에 달했다. 일제는 교회가 방해가 되자 그해 11월, 목천 사자골교회 신자 3명을 총살하고, 지령리교회를 불태웠다. 항일적인 성향

을 지닌 지령리교회에 대한 일본군의 보복이었다. 이는 일본인이 불태운 한국 최초의 교회로 기록되었다.

교회당은 불타 없어졌지만 지령리교회의 정신은 계승됐다. 1908년 케이블(Elmer M. Cable, 한 국명 기아부) 선교사에 의해 전도된 유년기가 고향으로 돌아와 불타 없어진 교회를 다시 세웠다. 이때 유관순의 숙부인 유중무를 비롯한 지령리 교인들도 교회 재건에 동참했다.

지령리교회는 항일성향만 강했던 것이 아니었다. 국운이 완전히 기울 1910년, 모든 백성이 갈 길을 잃고 방황할 때 ‘진명학교’를 세웠다. 미신타파, 농촌계몽, 한글보급, 문맹퇴치, 독립운동에 앞장섰다. 민족의 방향성을 설정하는데도 힘썼다.

그리고 1919년 4월 1일, 병천 아우내 장터에서 일어난 독립만세운동, 호서지방에서 일어난 제일 큰 민족운동이었다. 이 운동을 이끈 사람들도 지령리교인들이었다. 이 운동에 전교인이 참여했다.

당시 천안지방 감리사였던 윌리엄 선교사는 “천안 병천시장에서 장날을 가해 모든 사람이 시위운동을 하였는데... (중략) 그 중에 제일 비참한 것은 한 교우의 가족이 당한 일이다. 주인 부부는 참살을 당했고, 그의 자제는 여러 달 동안 감옥에서 상처를 치료하며 고생을 당하였고, 그의 여식은 3년 징역 선고를 받았고, 그의 어린 자식 2명도 아주 비참하여 볼 수 없다. 그러나 신자들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다.”라고 보고했다. 여기에 나온 일가가 바로 유관순 열사 일가다.

만세운동 후 교회에는 집회금지령이 내려졌고, 1932년 4월 18일 끝내 문을 닫고 만다. 해방이 될 때까지 예배를 드리지 못했다. 1967년 유관순의 모교인 이화여고의 도움으로 ‘매봉교회’라는 이름으로 설립되었다. 현재 매봉교회 건물은 1998년 기독교대한감리회 남부연회에서 모금해 재건축되었다.

매봉교회 옆에 유관순 열사의 생가를 복원한 생가지(生家地)가 있다. 정부가 열사의 애국정신을 가리기 위해 1991년 복원 정비한 것이다. 조그마한 방3칸에 마루, 부엌이 전부인 ‘ㄱ’자형 초가다. 이곳에서 유관순 열사는 태어나 유년시절을 보냈다. 교회는 유관순의 놀이터이자 배움터였다. 이곳에서 찬송가를 배우고, 어른들이 성경 읽는 것을 보고 한글을 깨우쳤으며 성구들을 곧잘 외었다.



▲ ‘유관순 열사 기념관’ 공원에 세워진 동상  
▼ 매봉교회와 유관순 열사 생가



유관순의 총명함을 알아본 엘리스 햄몬드 사프 부인이 그녀의 이화학당 유학을 도왔다. 그리고 이화학당 재학당시 일어난 31운동, 유관순은 고향에 내려와 만세운동을 전하며, 지역 유지들에게 동참할 것을 적극 촉구했다. 태극기도 직접 만들었고, 먼 길을 마다않고 사람 모으기에 힘썼다. 그 모습을 생가에 인형을 만들어 재현해 놓았다. 아쉽게도 유리벽으로 되어 있어 방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지만, 당시 유관순과 그의 가족들이 어떻게 31운동을 준비했는지 체험할 수 있다.

이날은 마침 초등학교 열댓 명이 견학을 하고 있었다. 마루에 앉아 선생님의 열띤 설명을 듣고 있었다. 또랑또랑한 눈으로 선생님의 설명을 놓치지 않으려는 듯 집중했다. 손에는 작은 태극기도 들려있었다. 아이들은 100여 년 전 이곳에서

거국적인 만세운동이 일어났다는 것이 피부로 와 닿을까. 아이들이 외딴 곳에 위치한 이곳까지 왔다는 것만으로 산교육의 현장을 보는 것 같아 흐뭇했다.

매봉교회 지하에 전시실이 따로 마련되어 있다. 매봉교회의 연보, 유관순 열사의 생애와 행적에 관한 자료들이 전시되어 있으니 꼭 관람하도록 하자.

기념관에서 매봉교회로 가는 중간쯤에 대로변 양쪽으로 안내판이 세워져 있다. 유관순의 부모인 유중권과 이소제, 숙부 유중무의 묘역을 알리는 안내판이다. 못보고 지나칠 수 있으니 지나치지 말고 꼭 묵념하고 가자.

\*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유관순생가길 18-2

## 온누리교회 앱 이용해 보셨나요?

언제 어디서든 복음 듣고, 소통하고!



온누리 앱 개발자 이준호 순장

◀온누리교회 앱 바탕화면

‘온누리교회 앱’이 교회와 성도들을 하나로 연결하는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다. 온누리교회 성도들은 ‘온누리교회 앱’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지 복음을 먹고 마시고 있다. 또한 성도들과 목회자들의 소통의 장이 되고 있다.

‘온누리교회 앱’은 이준호 순장(광명공동체)이 개발했다. 지난해 특별새벽기도회를 하면서 온누리교회 앱의 틀을 마련했다. 그는 IT업계에서 20년 동안 활동했다. 자신의 달란트를 성도들과 나누기 위해 온누리교회 앱에 대

한 그림을 그려나갔다. 그러던 중 온누리교회 전산실 담당 최상석 목사를 만났다. 둘은 온누리교회 앱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개발을 시작했다.

온누리교회 앱은 온누리교회 홈페이지와 iCare, iOnnuri, iSchool을 하나로 묶었다. 지금까지 누적 다운로드 수는 안드로이드 7000여건, 아이폰 900여건이다. 월 평균 3500명이 로그인하고 있다.

온누리교회 앱은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다. iSchool에 등록된 강의 목록을 한눈에 볼 수 있다. 자신이 수료한 강의 목록도 확인이 가능하다. 순장 이상 교회 리더십들은 담임목사의 메시지도 받아볼 수 있다.

온누리교회 앱의 차별화는 소통이다. 단순히 교회 정보만을 받아보는 것이 아니다. 쌍방향 정보교환이 가능하다. 중보기도를 요청할 수도 있고, 위급한 상황에 긴급요청을 할 수 있다.

이준호 순장은 “온누리교회 앱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김현준 기자 khj@onnuri.org

## 낮은 곳으로 가는 세 가지 강령 ‘Loving U’ 캠페인

행복한 불편함, 따스한 시선, 손해 보는 사랑

교회가 올해 표어인 ‘낮은 곳 더 낮은 곳으로’의 구체적인 실천 공약을 제시했다. 이듬하여 ‘Loving U’ 캠페인이다.

‘Loving U’ 캠페인은 교회가 먼저 불편함을 감수하고, 따스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손해를 감수한 사랑을 실천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구체적인 실천방법을 개인과 교회, 공동체별로 제시했다.

우선 개인 실천 캠페인으로는 음식 안 남기기, 개인컵(텀블러) 들고 다니기, 교회 올 때 대중교통 이용하기, 먼저 인사하기, 지역사회 봉사기관 찾아가기, 재래시장 물건 값 안 깎기, 예단 간소화하기, 전·월세 값 안 올리기, 유산 안 물려주기 등이다.

교회 실천 캠페인은 3월 먼저 인사하

기, 4월 차안 가져오기, 5월 개인컵(텀블러) 휴대하기, 6월 이웃집 찾아가기, 7월과 8월 소외된 이웃 찾아가기(여름 이웃리치), 9월 여유 물품 가져오기(9월20일), 10월 경제적 손해 보기와 차안 가져오기, 11월 감사절에 이웃과 함께하기, 12월은 재소자 자녀에게 성탄 선물 전달하기(Angel Tree)다. 4월 12일과 교회 창립 30주년 주일인 10월 4일은 전교인이 차 없이 교회 오는 날로 지정해 실천할 예정이다.

공동체 실천 캠페인은 지역 내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관계 맺기, 지역 환경개선 참여, 소외 이웃 품고 돌보기, 통일을 위한 중보기도 등이다.

문의: 02-3215-3434, 3436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 CGNTV, 10주년 맞아 또 한 번 도약

4대 가치에 걸 맞는 프로그램 제작 및 모바일앱 출시

CGNTV가 개국 10주년을 맞아 또 한 번 도약을 다짐했다. CGNTV는 올해 사회선교, 통일한국, 차세대, 선교를 4대 가치로 정하고, 이에 걸맞은 방송 프로그램 제작 및 모바일앱을 출시했다.

CGNTV가 올해 선보이는 프로그램이 눈에 띈다. 다문화사회와 선교에 대한 이해를 돕는 토크쇼 ‘지구촌 반상회’, 미디어판 제자훈련 청년제자프로

젝트 ‘RUN’, CGNTV 4대 가치가 실현되고 있는 현장을 찾아가는 ‘개국10주년 특집 다큐멘터리’, 내한 선교사 130주년을 되돌아보는 ‘블랙마운틴(가제)’ 등의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이 벌써부터 뜨겁다. 모두 스토리텔링이 강화된 프로그램들이다.

지난 3월 9일에는 ‘CGNTV 하모니’ 모바일앱을 공식 출시했다. ‘CGNTV 하모니’ 앱은 한국교회와 기관, 성도간

의 소통에 중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신앙의 본질로 돌아갈 수 있는 미디어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보인다.

‘CGNTV 하모니’ 모바일 앱을 이용하면 성경 구절 중보기도문, 명언 등을 볼 수 있다. 배경화면 제공, 성경통독, 테마 동영상연결, 그룹기능도 있다.

/ 김현준 기자



안산M센터 신축공사 기공식.

## 안산M센터 기공예배

지하1층, 지상4층 건물로 10월 완공예정

지난 10일, 안산 원곡동에 온누리M센터 신축 기공예배를 드렸다. 이주민 사역, 다문화가정 사역 확장 및 예배 공간 확보를 위해 건축을 시작했다. 연건평 906평에 지하1층, 지상4층으로 지어진다. 새로 지어진 M센터는 예배실, 다

문화사역, 사회서비스지원 등을 위해 사용된다. 오는 10월 완공예정이다.

문의: 하나은행 573-810031-74605

(예금주: 온누리교회 온누리미션)

/ 정현주 기자

## 전문인선교학교 OPMS 참가자 모집

3월 17일부터 참가 신청

두란노해외선교교회(TIM)에서 주관하는 ‘온누리전문인선교학교’(Onnuri Professional Mission School, OPMS)가 개강을 앞두고 3월 17일부터 참가자를 모집한다. 온누리전문인선교학교는 두란노서원 101호에서 4월 25일까지 12주 동안 진행된다.

참가신청은 홈페이지(www.tim.or.kr)에서 하면 된다. 훈련비용은 60만원이다. 7-8월 중에는 여름 이웃리치가 실시될 예정이다.

전문인선교사역에 관심 있는 성도나 해외지배랑선교 BAM(Business As Mission)을 준비하는 성도라면 누구나

지원가능하다. 온누리전문선교학교 OPMS는 전문인 자비량 선교사를 훈련, 양성하는 선교학교다. 복음이 제한된 지역에는 선교사 신분으로는 못 들어가기만 비즈니스 등 전문 직종을 가진 사람은 들어갈 수 있다.

성경책은 못 들고 가지만 상품은 들 어갈 수 있다. 교회는 못 세우지만 기업은 세울 수 있다. 다양하게 변하는 세계 선교환경 속에서 전문인선교학교 OPMS가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다.

문의: opmstim@gmail.com, 010-9685-3577

/ 정현주 기자

## 새가족반 특강

3월 29일 오후 1시  
서빙고 순형홀

새가족반에서 오는 29일 오후 1시 서빙고 온누리교회 순형홀에서 ‘기도를 어떻게 하면 되나요?’를 주제로 특강을 연다. 이번 특강에는 새가족들과 기도에 대한 체계를 배우고 싶은 성도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려운 것이 기도다. 이번 특강은 믿음생활을 시작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기도 원리와 개념을 재정립하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새가족반에서는 1년에 두 차례, 다섯 번째 주일이 있는 달에 특강으로 열고 있다. 올해 11월 29일에는 ‘구원의 믿음’을 주제로 특강을 할 예정이다.

문의: 정은숙 관사 010-7513-0713

/ 정현주 기자



주간 기 · 도 · 제 · 목

- 3월 16일(월) 일본선교의 새로운 결실을 맺는 집회되도록
- 3월 17일(화) 사찰, 신도, 관광철로 인한 영적 혼란을 이겨내도록
- 3월 18일(수) 한일간 정치문제가 집회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 3월 19일(목) 100개 협력교회를 세우고, 1,800명의 전도대상자가 생기도록
- 3월 20일(금) 출연진들에게 성령과 말씀의 권세가 더하도록
- 3월 21일(토) 스태프들이 기쁨과 감사, 기도로 준비할 수 있도록
- 3월 22일(일) 모든 참가자들이 신실한 마음으로 봉사에 임할 수 있도록

## ■ 전도폭발 훈련을 마치고



/ 홍단비 성도

## 저게 될까? 된다!

모두가 그렇겠지만 나는 전도폭발 훈련을 받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생각한다. 전도폭발 훈련을 받기 전에도 계속 기도했다. 주님께서 한 영혼이라도 더 살려 주시길, 구원해 주시길 바랐다. 기도는 했지만 행동으로 옮기지는 않았다. 사실 전도할 용기가 없었다. 막연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으니 들으시고, 알아서 응답하시겠지’라고 생각했다.

기도도 중요하지만, 행동으로도 옮겨야겠다고 결단했다. 그런데 전도할 용기가 없었다.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만 늘어갔다. 마침 내가 섬기고 있는 부서에 전도폭발 훈련을 받고 있는 분이 있다는 것이 생각났다. 당장 연락을 해서 전도폭발 훈련을 신청했다.

전도폭발 훈련을 시작하면서 어떤 프로그램인지 기대가 되었다. 전도폭발 훈련 과정 중에 노방 전도가 있었다. 나는 그것을 처음 접하게 되었다. 평소에 ‘저게 될까?’라는 의구심을 갖고 있던 전도방식이었다. 극성맞고, 이상한 사람들의 행동이라고 여겼다. 그런 내가 노방전도를 하게 되었다. 서울역에서 몇몇 사람들이 우리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감사하게도 노방전도를 나갈 때마다 거절하는 사람보다 들어주는 사람이 많았다. 그 자리에서 결신까지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하나님은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친구와도 만나게 하셨다. 갑갑한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그 친구도 결신하게 했다. 전도폭발 훈련을 받지 않았더라면 복음을 어떤 식으로 전해야 할지

몰랐을 것이다. 혼자 막막해하다 포기했을지도 모른다. 하나님은 적절한 상황에, 만날 사람을 보내 주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무엇보다 그들을 향한 사랑과 뜨거운 마음을 부어주셨다.

그들과 함께 결신기도를 할 때 정말 간절하고 진지한 모습을 보았다. 그 모습을 보며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지, 내가 그동안 전도에 얼마나 무심했는지를 생각하게 되었다. 또 전도전문을 공부하면서는 내가 먼저 은혜를 받았다. 전도전문을 잘못 외워 커닝을 하며 어수룩하게 복음을 전해도, 그것을 듣고 결신하는 사람들을 보며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전도폭발 훈련을 하면서 감사한 것이 또 있다. 함께 연합해서 전도할 수 있는 동지들을 만난 것이다. 나 혼자 힘으로는 전도하는 것도, 전도폭발 훈련을 끝까지 마치는 것도 쉽지 않았을 것이다.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는 말씀처럼 서로가 서로에게 큰 힘이 되었다.

이제 나는 전도폭발 훈련 1단계를 마쳤다. 2단계, 3단계를 마칠 때마다 성장하고 큰 은혜를 받았다는 선배들의 이야기가 생각난다. 나도 전도폭발 훈련을 통해 어떤 모습으로 성장하게 될지 기대가 된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이 하시는 일이고, 은혜임을 고백한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 드린다.

전도폭발 훈련 문의: 02-3215-3214

## ■ 또 하나의 CGN패밀리



/ CGNTV 후원팀 박찬미

강원도 흥천  
시골 교회의 선교헌금

강원도 흥천 도심에서 25킬로미터 떨어진 작은 시골 교회에 몇 년 전 CGNTV 안테나가 달렸다. 서울에서 목회중인 아들이 아버지가 섬기고 있는 시골 교회에 몇몇 청년들과 함께 가서 직접 CGNTV 안테나를 설치해 드린 것이다. 아들의 선물인 그 안테나는 오지에 있는 그의 부모님을 도시와 연결시켜 주었다.

29년 된 시골 교회에서 15년째 우직하게 사역중인 67세 아버지 목회자는 그간 원하는 세미나나 영적 정보가 있어도 쉽게 접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CGNTV 안테나 설치 후 완전히 달라졌다. 이제는 원하는 집회나 세미나를 현장에 있는 것처럼 들을 수 있다. 같은 시간 또는 그 다음날 원하는 세미나 말씀, 선교지 소식 등을 원없이 볼 수 있게 됐다. 또한 예전에는 선교사인 몇몇 동료들을 통해 간간히 선교지 소식을 듣는 것이 전부였는데 이제는 지구촌 선교지가 가까이에 있다.

부부는 CGNTV에 대한 고마움이 매우 크다고 했다. 그의 아내는 이제 “CGNTV가 없으면 살맛이 안 날 것 같다”고 말할 정도다. 부부는 방송과 늘 함께 한다. 큐티 방송으로 하루를 열고 있다. 남편이 잠

시 뉴스를 볼 때를 제외하곤 늘 화면 속 말씀과 동행한다.

부부는 재작년부터 교회 선교헌금으로 CGNTV를 후원하기 시작했다.

소탈한 아버지 목회자는 “CGNTV를 통해 많은 도움을 받기 때문에 그저 해야 할 것을 하는 것 뿐”이라고 말하면서, “헌금이 해외에 있는 더 많은 선교사들에게 유익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바람을 전했다. 성도들에게도 그 마음을 나눴다. 중학생 한 명, 40대 한 명 그리고 대부분의 성도가 70대인 교회에서도 선교에 대한 비전이 선포되고 있다. CGNTV가 뭔지도 모르던 성도들의 마음에 선교와 CGNTV라는 이름이 자리 잡고 있다.

성도들은 그 비전을 다 헤아릴 수 없고, CGNTV를 보지 못했지만 순전한 마음 하나로 작은 정성을 모아 선교 헌금을 드리고 있다. 그 헌금이 CGNTV로 전달되고 있는 것이다.

크리스천 글로벌 네트워크 강원도 흥천 시골 마을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위한 작은 정성이 모아지고 있다. 또 하나의 CGN 패밀리가 기도로 손잡고 있다.

## ■ 강동 프라미스공동체 수련회 간증



/ 장정애 순장(강동 온누리)

이 은혜가 신기루처럼  
사라지지 않기를

나는 내 마음을 말이나 글로 표현하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한다. 걱정이 앞서지만 이번 수련회에서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지체들과 나누고 싶다.

이번 수련회는 한 마디로 격려와 감사의 시간이었다. 사실 수련회를 가기 전 내 마음이 굉장히 안 좋았다.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은 잊혀지고, 정죄감과 공허함이 발목을 강하게 붙잡고 있었다. 가기 싫는데 순장이라 어쩔 수 없이 가야 했다. 의무감에 억지로 가게 되었다.

수련회 첫 시간, 내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텅 빈 공간이었다. 사람들이 많이 없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해주신 은혜의 잔치에 주인공들이 많이 참여하지 않아 안타까웠다. 수련회 첫째 날은 억지로 간 탓인지, 좀처럼 마음이 열리지 않았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갔다.

둘째 날이 됐다. 배성우 목사님께서 이번 수련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들을 추억하고 기억해보라고 하셨다. 배 목사님의 메시지를 듣고 기대감이 생겼다. 첫 강의는 조복출신(7) 문병철 장로님의 강의였다. 전도에 대한 강의였는데 결속한 사투리와 강한 카리스마로 성경말씀을 줄줄이 외우셨다. 그리고 “전도하지 않으면 사람도 아니다”라는 강한 도전의 메시지를 남기셨다. 그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이번에는 손기철 장로님의 강의시간. 찬양

을 드리는데 마음이 무거워졌다. 윤석원 목사님의 열정적인 모습이 눈에 들어왔기 때문이다. 이번 수련회의 주인공인 우리들은 열정이 없어 보이는데, 윤 목사님은 기뻐 뛰며 찬양하는 열정을 보이셨다.

손기철 장로님이 말씀하셨다. “억지로 끌려 나온 외양간의 소들처럼, 너희가 살아 있으나 죽은 자로다!” 현실을 따끔하게 지적해 주셨다.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아팠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습이 장로님 말씀 그대로였기 때문이었다. 하나님의 마음이셨기에 더욱 죄송했고, 한편으로는 깨우치게 되어 감사했다.

최하진 선교사님의 중국학교 사역을 듣는 시간도 있었다. 최 선교사님의 사역을 보며 하나님의 크기(God Size)는 정말 대단하다는 것과, 단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분이심을 다시 한번 느꼈다.

나는 간절히 기도했다. 하루에도 수없이 바쁘고 흔들리는 나의 연합함을 잘 알기에 이 은혜가 신기루처럼 사라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했다. 또한 우리 프라미스공동체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기도했다.

우리의 목마름과 갈급함을 채워주시고, 청년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새롭게 되리라 믿는다.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아버지.

고경미 간사의(디자인실)  
위 클 리 공 감

## 예수쟁이!!

나는 예수쟁이다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야 한다~  
내가 예수쟁이로 결~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재미란,,?  
진짜 재미있어!!  
세상의 쾌락보다  
정말, 훨씬 재미있어!~

- 하늘빛 향기 녹화중  
가수 노을 멤버 강균성





장로칼럼 강찬석 장로(서대문 공동체)

## 시골교회는 기도와 관심이 필요하다

지난해 3월초, 청년부 갑렘공동체 멘토월례회에서 청년전도분과가 실시한 거지전도훈련 상황을 들었다. 거지전도를 다녀온 청년들이 경험하고, 도전받은 이야기를 들려줬는데, 그 중에 이 단들의 교묘한 포교 전술에 무방비 상태인 한국 교회의 실정이 가슴 아왔다.

경기도 이천 설성면에 위치한 설성감리교회가 피해를 몸으로 겪은 교회 중 하나다. 이 교회는 개척된 지 60여 년 됐다. 120여 명이 출석하던 교회였다. 농촌교회로서는 제법 지리가 잡힌 전통을 자랑하는 교회였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신천지 추수꾼이라 자칭하는 세력들이 순진한 시골 사람들에게 온갖 친절을 베풀며 환심을 사고 접근했다. 몇몇 열정 있는 성도들에게 성경공부라는 위장된 전술을 펼치더니, 상당수의 성도들을 현혹시키는 참담한 일이 벌어졌다.

지금 설성감리교회는 고령자 성도 30여 명만 남았다. 어려운 교회로 변했다. 설성감리교회 김태영 담임목사는 부임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런 황당한 일을 겪자 감당할 수가 없어 감리교총회 본부에 사직서를 내고 목회를 그만둘 결심을 지했다고 한다.

갑렘공동체 임원들은 여름 아웃리치를 설성감리교회로 가기로 정하고, 멘토들에게 도와달라고 했다. 십여 명의 멘토들이 아웃리치 현장을 방문했다. 더 자세한 교회 사정을 접하게 되었다. 돌아오는 길에 고 하용조 목사님이 교회가 교회를 세우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하셨던 것이 떠올라기도했다. 그리고 내가 속한 서대문공동체 이해영 목사님과 의논하고 운영위원회를 열어 설성감리교회를 도울 방법을 의논했다. 서대문공동체 아웃리치를 그곳으로 가기로 결정했다. 실행팀

을 꾸려 다섯 번이나 답사를 했다. 설성감리교회의 필요와 공급의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했다.

70여 명의 서대문공동체 지체들이 설성감리교회로 아웃리치를 갔다. 교회를 말끔히 청소하고, 커튼을 빨아 다시 걸었다. 페인트도 칠하고, 외벽 수리도 했다. 몇 분의 노인 권사님들이 울먹이며 얼마나 기뻐하시던지... 그 모습을 보고 협력해 선을 이루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다.

서대문공동체는 계속해서 설성감리교회를 돕기 위한 논의를 했고, 일 년 동안 매월 둘째, 넷째 주일에 다량방별로 2개 순씩 찾아가기로 결정했다. 올해 1월부터 실행에 들어갔다. 때를 맞춰 설성감리교회 부근 군부대에서 믿음의 병사 십여 명을 보내주어 함께 예배드렸다. 젊은 병사들이 가타와 드림을 치며 찬양인도를 했다. 이 일로서 대문공동체는 활력이 더 생기고, 결속력도 더 좋아졌다. 공동체 지체들은 먼 길을 다녀왔는데도 피곤한 기색이 없었다. 정말 좋았다는 말로 은혜를 나눴다. 서대문공동체의 축제가 되었다. 앞으로 약간의 적응기간을 거친 후에는 주일 예배 후에 양육 프로그램도 적용해볼 생각이다.

우리 모두 기도하며 바라고 있다. 이단의 계교에 밀려 교회를 떠났던 성도들이 하루 속히 돌아와서 원래의 교회 모습으로 회복되기를 말이다. 또한 서대문공동체가 둘째주일과 넷째주일 예배를 섬기고 있으니, 첫째주일과 셋째주일에 설성감리교회를 섬길 수 있는 지체들이 생기기를 기도하고 있다. 서대문공동체의 열정 어린 섬김과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설성감리교회를 넘치도록 축복해 주실 것을 믿는다. 힘들고 지쳐 낙망하고 있는 시골교회의 교역자들을 위한 기도와 관심이 필요하다.



권사칼럼 이성미 권사

&lt; '나의 하루'를 읽고 &gt;

## 하용조 목사님, 뵙고 싶습니다.

나는 온누리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했다. 하용조 목사님께 세례 받고, 안수집사와 권사 직분을 받았다.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게 되면서 말씀을 쉽게 풀어 전해주시는 하 목사님이 얼마나 귀하고 존경스러운 분인지 알게 되었다.

작년 크리스마스 즈음 주일날 이재훈 담임 목사님께서 하 목사님이 젊은 날에 쓰셨다는 책을 소개하셨다. 내가 존경하는 하 목사님의 젊은 시절은 어땠을까? 기대가 되고 호기심이 생겼다. 궁금증이 생기고, 조바심이 생겨 그날 서점에서 책을 샀다.

책 <나의 하루>는 하 목사님이 직접 쓰신 일기다. 포효하며 뛰어 오를듯한 스물셋 대학 청년 하용조가 결핵으로 병원에 입원하고 있을 당시의 생각, 젊은 날 고뇌로 가득 찬 영혼의 일기다. 43년 전 기록된 빛바랜 노트 속에 갇힌 그 고뇌의 중심에는 언제나 예수님의 복음이 팽 Rank하고 있었다. 결국 그러한 하루하루는 고스란히 하 목사님의 비전이 되고, 비전의 기록이 사명으로 새겨졌다. 그리하여 마침내 복음 전도자의 일생으로 사시게 된 것 같았다.

“주님, 무명의 촛에서 아무 명에도, 권세도 자랑도 칭찬받음도 없이 살아도 좋습니다. 나의 시간들은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시간으로, 나의 몸짓과 말과 행동은 십자가 위의 주님의 모습으로 축복해 주소서. 주님의 마지막 날을 준비하며 외치다 죽게 해주소서.”

청년 하용조는 온 몸으로 주님 사랑을 토해내며 주님을 위해 살고자 했다. 조국과

민족의 축복을 위하여 마음이 병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주님에게 돌 던지고, 칼질한 사람들을 사랑하고 싶다고 부르짖었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밥 먹어도 조국을 위해 잠을 자도 조국을 위해’라는 구절처럼 청년 하용조도 가난한 내 민족을 늘 생각하였다. 이 민족의 핏줄에 주님의 피를 대어야겠다고 결단했다. 청년 하용조는 “나는 먼저 주님께 일생을 바치기로 결심했다. 그렇게 살지 아니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은 주님이 나에게 주신 명령이고 사명이다. 필요하다면 죽음도 불사한다.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나의 전부! 이것이나의 갈 길이다”고 했다. 이때부터 청년 하용조는 한국교회 성도들이 복음의 열정과 믿음의 순수함을 사모하고 주님 뵙아가야 한다는 본보기가 되고 있는 듯하다.

기도로 살고, 성경으로 살며, 침상에서나, 꿈결에서나, 주님만 사모한 청년 하용조의 기록을 통해 꿈을 꾸고 비전을 찾아 떠나려는 그의 시작점을 볼 수 있었다. 고통과 슬픔의 시간, 위기와 절망의 날들에 스물셋 청년은 벌써 그리스도의 갈 길, 민족의 갈 길을 향하여 미래로 가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나는 젊다. 그리고 앞으로도 젊을 것이고, 영원히 젊을 것이다. 내 청춘을 독수리처럼 새롭게 하시는 주의 은혜를 붙잡고 한 평생을 달려갈 것이다” 청년 하용조의 외침이 지금도 믿음이 연합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고 있는 듯하다.



김소리 목사(평택 온누리교회)의 신앙에세이

한 여대생이 버스 정류장에서 전화를 받는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리며 “정말요?”라고 울린다. 감격스러웠는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며 전화기에 계속 외친다. 그리고 옆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말한다. “저, 합격했어요! 정말로 가고 싶었던 회사에 합격했어요!” 그러자 옆에 사람들이 축하해준다. “아머 축하해요. 정말 잘 됐네요. 앞으로 더 잘 될거예요” 그 여학생을 모르는 사람인데도 진심으로 안아주며 축하해 주었다.

이것은 실험이다. 기쁜 일이 있을 때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함께 기뻐해 줄 수 있는지를 실험한 것이다. 이제까지 본 적 없고 이름도 모르지만 사람들은 진심으로 기뻐하고 축복해주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감하는 능력을 심어주셨다. 공감(共感).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는 능력이다. 공감이라는 말의 어원은 ‘다른 사람의 신발을 신고 걸어본다’는 의미가 있다고 한다. 다른 사람의 신발을 신었을 때 그가 느꼈을 상황을 내가 직접 똑같이 체험하는 것이다.

공감의 가장 대표적인 행동이 위로다. 그가 느꼈을 마음의 아픔과 슬픔을 함께 느껴주는 것이다. 아픔과 슬픔에서 다시 일어 서도록 힘을 북돋아 주는 것, 그것이 ‘위로’다.

성경에 ‘위로’란 뜻을 가진 이름이 있다. ‘나훔’이다. 나훔은 익숙한 인물은 아니다. 그가 ‘엘고스 사람’이라는 것 외에는 특별히 알려진 것이 없다. 그러나 ‘위로’라는 이름을 가진 나훔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 주신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 주신다는 메시지다. 나훔의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백성을 위해 용사가 되어 주셔서 고통을 주는 앗시리아를 흔내주시겠다는 ‘위로’다. “여호와와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나훔 1:7)

선하시고 좋으신 하나님께서 환난 날에 산성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을 모른체하지 않으신다는 이 말씀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오늘날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가! 하나님께서는 나훔을 통해 이 사실을 알려셨고, 실제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하셨다.

옛날 이탈리아의 한 성당에서 일어난 일이다. 예배시간이 아는데 한 부인이 교회에 들어와 앉자마자 통곡하기 시작했다. 울음이 멈추지 않자, 당시 교회를 지도하던 암브로시오라는 유명한 감독이 다가가 물었다. “부인, 무엇 때문에 이렇게 우시는지요?” 부인이 말했다. “감독님, 제 아들이 이단에 빠졌어요” 그때 암브

로스 감독이 부인에게 역사에 남을 위대한 말을 한 마디 남겼다. “걱정마세요, 부인. 기도하는 자의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이 부인이 바로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다. 어거스틴은 다시 돌아왔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역사에 커다란 발자취를 남기는 거목이 되었다.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한 여인의 고통을 들어 주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를 포기하지 말라고 위로하였다. 또 그 여인은 기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대화를 멈추지 않았고,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위로로 아들을 회복시켜 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감하는 능력을 주셨다. 그런데 정작 가장 가까운 사람을 공감하지 못하고 위로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길이다.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자. 기도로 하나님과 대화하자.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자. 그 위로를 가지고 위로가 필요한 가까운 사람에게 가자.

삶이 힘들어 주저앉고 싶은 사람들, 이제는 흘릴 눈물조차 메 말라 버려 마음이 갈라지고 황폐한 사람들, 긴 한숨이 나도 모르게 버릇이 된 사람들, 잠깐이라도 기댈 곳이 없어 그스러움이 아픔이 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산성이 되어 주신다는 위로를 전하자. 당신은 ‘나훔’이다. 당신은 그들에게 위로의 통로다.

## 크리스천과 위로



## 주일강단

〈3면에 이어〉

# 교회의 존재목적

출애굽의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을 출애굽하게 했던 그 언약의 내용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고향, 네 친척, 네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 주는 땅으로 가거라. 네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크게 할 것이니 내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 복을 받을 것이다.’”(창 12:1~3).

출애굽은 이 말씀 때문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지키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이 출애굽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의 초점이 미래의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모든 족속을 향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과 다른 버전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과 모세와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은 동일한 맥락입니다. 대상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고, 장소가 바뀌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일관성이 있습니다. 둘 다 모든 족속을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이 약속을 지키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창세기 12장의 말씀을 출애굽기 19장에서 모세와 그 후손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버전만 다를 뿐입니다. 업데이트 된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민족에게 복 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 특별한 보물, 제사장 나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복의 근원이 되리라는 말씀을 모세와 백성들에게는 세 가지 다른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너희가 내게 온전히 순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들 가운데 특별한 내 보물이 될 것이다. 온 땅이 다 내 것이지만 너희는 내게 제사장 나라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나는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리라”(5-6절).

첫째, 특별한 내 보물입니다. 개역개정에서는 ‘내 소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단순한 소유가 아니라 애지중지하고,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구별된 것을 의미합니다. 다윗이 성전을 건

축할 때 자신이 통치해서 쓸 수 있는 자금이 아니라 개인 재산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때도 저 단어를 썼습니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자신이 아끼는 물건으로 따로 구별해서 드린 것을 가리킬 때 쓰는 단어입니다. 모든 민족들 가운데 특별한 내 보물이라고 했습니다. 그 보물 그 자체가 귀한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위해서 사용될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보물입니다. 모든 민족에 대한 시야를 잃어버리는 순간 그 특별한 보물의 가치는 없어집니다. 교회가 만약 모든 민족을 향한 사랑과 기도와 비전을 포기하는 순간 특별한 보물이 될 수 없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이 될 수 있는 것은 모든 민족을 품을 때입니다.

둘째, 제사장 나라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중재역할을 하는 직책입니다. 제사장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제사를 실행함으로써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데려가는 역할을 합니다.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출애굽 한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다는 것은 ‘나는 너희를 통해서 세상에 알려지기를 원하고, 너희를 통해서 이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오기를 원한다’는 의미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특별한 보물을 택하신 것입니다. 출애굽 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향한 제사장 나라입니다. 구약과 같은 제사제도는 실행하지 않고, 구약과 같은 율법의 해석은 필요하지 않지만 교회는 여전히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입니다. 나라라는 것은 공동체입니다. 함께 부르심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이 시대 제사장의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이 시대 제사장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나타내고,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오게 하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 존재의 목적입니다.

교회가 존재목적에 가장 합당하게 서 있다면 사람들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겠습니까. 반대로 교회가 존재목적대로 살지 못할 때 어떤 평가를 받겠습니까. 구약에서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엄격한 징벌을 내리신 이유는 그들의 선택과 행동에 따라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대한 세상의 평가가 가혹하다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구약의 제사장들을 얼마나 엄격하게

다루시는지를 생각해 보면 많이 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하면 됩니다. 왜 세상이 교회를 비난하는냐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다른 세상의 기관들보다 교회를 더 엄격하게 볼 것입니다. 거기에는 놀랍게도 믿음이 있습니다. 교회를 욕하고 비판하는 사람들 마음속에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면 흥분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욕을 많이 한다는 것은 그만큼 기대를 하는 것입니다. 비판을 많이 하는 것은 기대를 많이 한다는 증거입니다.

### 존재목적에 합당한 교회와 성도

셋째, 거룩한 민족입니다. 이것은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이뤄져야 합니다.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민족은 같은 단어입니다.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보물이라는 단어와 같은 의미입니다. 거룩은 타락한 본성으로는 이룰 수 없습니다. 거룩은 덧입혀져야 합니다. 출애굽은 우리 힘으로 이룰 수 없었던 것처럼 죄로부터 벗어나는 것도 우리 힘으로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이 덧입혀져야 합니다.

우리는 거룩을 추구해야 합니다. 놀라운 것은 거룩을 추구하고, 노력하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할 수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노력하고자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특별한 내 보물, 제사장 나라, 거룩한 민족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한 보물로 부르심을 받은 이유는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한 것이고,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거룩한 민족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합니다.

순종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응답입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미래에 이루실 하나님의 선교를 내다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특별한 보물입니다.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민족입니다. 날마다 순종으로 응답할 때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를 통해 이뤄집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특별한 보물로,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민족으로, 주님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모든 민족에게 복 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뤄집니다. 존재목적에 합당하게 존재하는 온누리교회가 되기를,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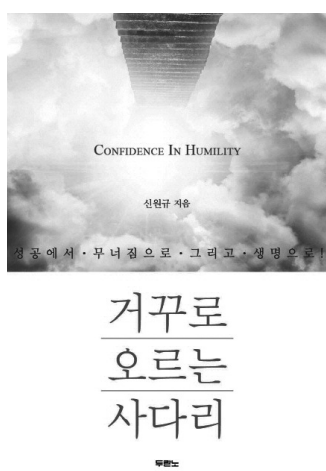
## 두란노 신간

## 한 목회자의 무너짐 그리고 회복

〈거꾸로 오르는 사다리〉  
신원규 저 | 두란노 | 11,000원

저자는 1990년대 미국 LA에서 가장 성공적인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던 인물이다. 그는 외적인 성공을 하나님이 복을 쏟아 붓고 계시는 증거로 여겼다. 하지만 하나님은 미국의 금융 위기를 통해 꺾임 없이 교회를 은행에 넘기게 하셨다. 하나님은 그를 10년 여 동안 끈질기게 무너뜨리고 또 무너뜨리셨다.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종으로 부름 받은 저자가 어떤 시행착오를 거쳤는지를 보면서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다. 저자의 진솔한 회고와 고백이 돋보이는 책이다.



〈예수만 남겨질 때까지〉  
카터 콜론 저 | 토기장이 | 9,000원

저자는 부요한 시대 이후 찾아올 광야의 시대를 예고하고 있다. 그러면서 역사의 마지막 구간을 살고 있는 성도들이 가져야 할 영적 감각을 이야기한다. 이 책은 영적 각성 메시지를 담고 있다. 왜 교회와 성도들을 광야로 인도하시는지를 알려 준다.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신뢰할 수 있는 관점도 제시해 준다. 이미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의 이름이 그 해법임을 알려준다. 제목처럼 예수만 남겨질 때까지.

